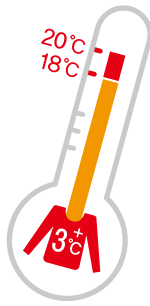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13.01.02 NO.190
korea.kr/gonggam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 설원의 평창으로 오세요! P25~39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당선인 회동 P6~7

2013,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세대들의 외침 P12~23

〈위클리 공감〉 독자 여러분께

"이제 세계를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뻗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 큰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클리 공감〉은 지난 2009년 3월 처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 이래 정부와 국민을 잇는 친근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서민금융제도나 복지 사각지대 조사 같은 생활밀착형 정부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내어, 보다 많은 국민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같은 큰 국가적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국민임이 정말 자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고, 세계 주요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우리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고, 환경 분야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세계 중심국가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국민 모두 글로벌 경제위기를 묵묵히 이겨내면서 밤낮없이 일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일들을 국민 모두와 함께 자축하고 싶고, 또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도선부(水到船浮)'는 '물이 불어나 큰 배가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뻗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새해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미얀마까지 불어오고 있지만, 북한은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60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숱한 어려움을 헤치고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궈왔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 경제위기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으며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온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위기의 마지막 고비를 지나 어두운 터널 끝의 밝은 빛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새해 아침

대통령 이명박

Contents

190호
2013.01.02 통권 291호

표지 이야기 | 오는 1월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제10회 동계스페셜 올림픽의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지적장애 스포츠인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예선 탈락도, 꼴찌도 없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그야말로 모두가 승리하는 화합의 이벤트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와 편견의 벽을 넘기 위한 이들의 도전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사진·조선DB

기획특집

1월 29일 평창과 강릉에서 특별한 올림픽이 열립니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스페셜올림픽은 각국을 대표하는 지적장애 스포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더불어 지적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백20여 개국에서 총 3천3백여 명의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5

52

54

44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3.01.0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10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를 읽고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줄 참살이 온천여행

감성여행을 항상 챙겨 보고 있습니다. 시원한 풍경사진과 함께 소개된 여행지의 매력을 읽으며 언젠가 꼭 찾아가리라 다짐하거든요. 특히 189호에 실린 충남 예산 웰빙 온천여행은 제목만으로도 추운 겨울의 꽁꽁 언 몸과 마음을 녹일 것 같더군요. 여름에만 워터파크에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겨울에도 온천탕을 열어 운영하는 줄 몰랐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수북이 쌓인 노천탕에 몸을 담그며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풍류를 즐길랍니다.

정두진(58·회사원·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따뜻함과 패션 센스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 온맵시

기획특집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온(溫)맵시'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정말 추웠잖아요. 저는 남녀의 옷 연출법을 제시한 '겨울철 온맵시 센스'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었어요. 여자와 달리 남자는 옷의 종류가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겨울 남자 연출법을 보고 도움이 됐어요. 따뜻함과 패션 센스까지 고려한 연출법으로 아침마다 옷 걱정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차현우(50·회사원·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우리 모두 '황소바람 잡기 캠페인'을 실천해요

'정부부처 에너지 절약 노력'편을 읽었습니다. 그중 '황소바람' 캠페인이 눈에 띄더군요. 황소바람의 뜻이 좁은 틈으로 세게 불어드는 바람이라고 하던데요. 유난히 한파가 극심한 올겨울에도 황소바람이 집집마다 매섭게 쳐들어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틈·창틈에 문풍지를 부착하면 실내온도가 상승한다는 효과를 읽고 놀랐습니다. 문풍지를 이용하기만 해도 실내온도가 2~3도나 상승한다니까요. 어려운 일도 아니니 우리 모두 문틈·창틈에 문풍지를 부착하는 '황소바람 잡기 캠페인'을 실천합시다!

신민아(26·학생·인천 부평구 부평동)

장애인의 고용확대 촉진 위한 대회 꾸준히 열길

한 시각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모습을 그린 다큐프로그램을 본 적 있습니다. 장애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모르긴 해도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악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단 기사를 보고 반가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촉진시키고,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김려희(53·주부·경기 과천시 별양동)

독자 인터뷰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공감… 한식의 유래도 흥미로워"

김정의 (26·학생·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학생인 김정의씨는 지인의 소개로 〈위클리 공감〉을 읽게 됐다. 경제, 문화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분야의 정책들을 한눈에 담아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189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는.

"기획특집의 '전문가제언' 편이요. 매년 겨울만 되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끄고, 안 쓰고, 절약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런 운동들은 일시적일 수 있고, 겨울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도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고 무척 공감이 됐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짓도록 한다거나 고효율 전구로 교체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전략들에 눈길이 가더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눈길이 가는 기사는 어떤 게 있는지.

"'한식을 생각한다' 코너입니다.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식의 유래를 읽다 보니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흥미가 절로 생기더군요. 그냥 서민음식이라 생각했던 돼지국밥이 사실은 왕실 잔칫상에 오를 정도의 고급 식품이었다니 새삼 다르게 보이네요.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화제의 책'을 잘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코너가 격주로 나와 좀 아쉽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지 좀 더 많은 책을 자주 소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독자 인터뷰 신청받습니다. 〈위클리 공감〉을 읽으신 후 느낀 점을 간략한 자기소개, 연락처, 얼굴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메일(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알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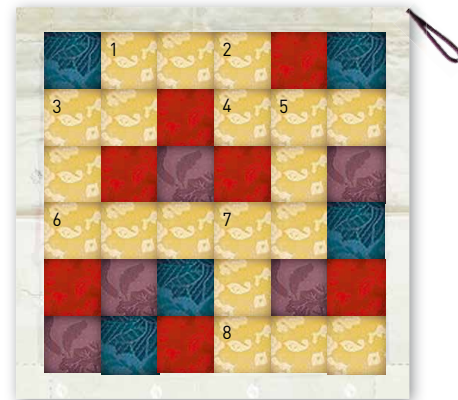
1월 10일 오전 10시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정부는 2013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비상시 상황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절전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혹한으로 전력수급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순환단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시간 동안 최대한 절전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3년 1월 10일(목) 10:00~10:20 (20분간)
- **대상지역** 전국
- **훈련상황** 혹한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로 예비전력 200만KW이하의 단계별 상황부여 (경계 → 심각)
- **훈련내용**
  - 전국의 가정, 상가, 산업체, 사무실에서 자율적 절전훈련 실시
  - 공공기관 의무단전, 비상발전기 가동 시험
  - 산업체 긴급절전 모의훈련 실시
  - 순환단전 모의훈련 실시
  - 전력유관기관 전파체계 점검

공항 휴지통 디자인 대학생 공모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휴지통 디자인을 공모한다.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공사 채용 지원 시 우대해 주는 혜택도 있다. 제출형식 및 규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모대상** | 전국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전공 제한 없음)
- **공모내용** | 공항 휴지통 디자인 2종(대형 1, 소형 1)
- **공모기간** | 2013년 1월 22일까지
- **응모방법** | 이메일로만 응모 가능. 공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응모작품(원본 파일 및 그림 파일)과 함께 이메일(gkssk446@airport.co.kr)로 제출
- **시상내역** | 대상 1명 2백만원, 우수상 1명 1백만원, 장려상 2명 각 50만원
- **유의사항** | ▲휴지통 디자인 2종(대형 및 소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원본파일은 디자인 데이터로서 질감, 형태, 색상, 사이즈 등이 표되어야 함 ▲휴지통 크기는 대형은 가로 1백센티미터, 세로 1백센티미터, 높이 1백센티미터 범위 내, 소형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디자인
- **문의** | www.airport.co.kr ☎02-2660-2308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월 1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짜인 모양새. 글 등의 내용이 앞뒤 연관과 체계를 갖춘 상태.
3. 세상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4. 바닷가 모래땅과 산기슭에서 나는 향기가 좋은 꽃나무. 가수 이미자 님의 노래에도 나오죠. "○○○ 피고 지는 섬 마을에~"
6. 정신 발달이 저지되거나 뒤져 있는 사람.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는 1백20여 개국 3천3백여 명의 ○○○○○ 선수들이 알파인스키 등 올림픽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펼치고, 국경·이념·인종·종교의 장벽을 넘어 함께 어울리는 인류 축제의 장입니다."
8.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마음.

세 로

1. '그만한 수나 양,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가진 접미사. "백원○○ 동전."
2. "2013년, 계사년, 뱀띠, 새 정부 출범…, 다가오는 ○○의 모습입니다."
3.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
5. 선거에서 뽑힌 사람.
7. "위클리공감 ○○○ 여러분!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Weekly 공감〉 188호(12월 19일)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베개 4. 르네상스 6. 육회 7. 무역 8. 사랑채
세로 1. 베니스 2. 도르래 3. 동시통역 5. 상조회사 7. 무채

〈Weekly 공감〉 188호 '공감 퍼즐' 당첨자
윤진경·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김충군·서울 구로구 고척1동
김윤미·경기 부천시 오정구
권기옥·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
전순애·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첫 만남이다.

"전력수급 등 신경을"… "마지막까지 최선"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당선인 청와대 회동… 정부 인수·인계, 국정현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28일 만남을 갖고 국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9일간 쪽방촌 등을 찾아 어려운 이들의 삶을 살피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대기업 총수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가지며 차분하면서도 분주하게 민생과 화합을 위한 행보를 해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와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만나는 것은 25년 만의 일이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2일 오찬 회동을 가진 후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이번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경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박 당선인에게 환한 표정으로 "추운데 빨리 들어와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 당선인은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답한 후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서 다시 한 번 박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고 "건강은 괜찮아요? 선거 끝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건강은 괜찮아 보여요"라고 하자 박 당선인은 "쪽방촌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쪽방촌 통로가 좁아 보였다"라고 말했고, 박 당선인은 "조금 늘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때 여기저기 다녀보니 경기가 침체돼 있고, 서민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봤다"라며 "강추위 속에 전력수급 등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전, 재해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선DB

당선 이후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살펴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5일 손수 싼 도시락을 들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의 한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다.

당선 이후 화합과 민생·공생 행보 펼쳐

박 당선인은 12월 20일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추운 겨울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챙기겠다"고 밝힌 대로 당선 이후 화합과 민생·공생의 행보를 펼쳐왔다.

박 당선인은 12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향동 난곡 사랑의 집을 방문해 난곡 사랑의 집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30여 개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당선인은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한다. 이런 추운 날 와보니까 하시는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서 난곡 사랑의 집 김한수 사무국장에게 "국가나 사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면 좋겠느냐"고 물었으며, 김 사무국장으로부터 생생한 조언을 들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50대·5인가족)씨 집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한 뒤 김씨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박 당선인은 12월 25일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일경로당을 방문했으며, 이어 창일경로당 3층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도시락을 준비해 창신동 쪽방촌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에 반찬을 담은 박 당선인은 "성탄절 같은 날에는 더 외롭고 힘드신 분이 많은데, 도시락을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과 함께함으로써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박 당선인은 김나나 쪽방촌 상담소장과 함께 어르신들께 직접 도시락을 전달했다. 신장염 등을 앓고 있는 쪽방촌 3층에 거주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직접 도시락을 들고 3층까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으며, 위암 판정을 받고 홀로 쪽방촌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할아버지를 방문해 도시락을 전하며 위로했다.

12월 26일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대기업회장단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박 당선인은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왔다"면서 "중산층을 70퍼센트까지 재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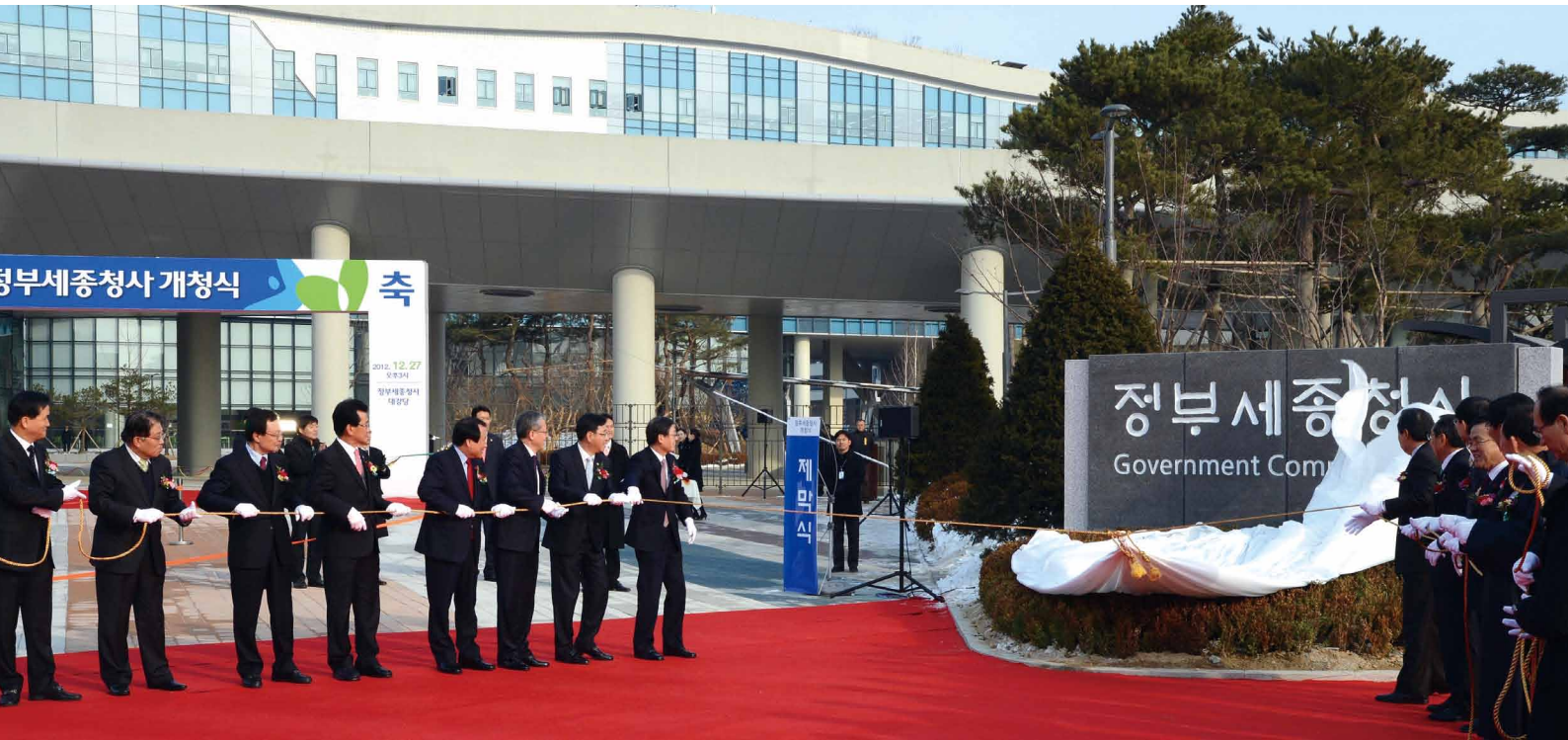
인수위원장 등 임명…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만전

박 당선인은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선되는 순간 여러분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이 바로 소상공인 여러분이고, 또 우리 사회의 뿌리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같은 여의도동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빌딩에 도착,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당선인은 "우리 대기업이 좀 변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윤보다 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에 대해 "새 정부와 협력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구현하고 사회적 공헌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12월 27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고 인수위 부위원장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 등 내빈이 종합안내동 앞에서 표지석 제막식을 하고 있다.

21세기 선진 한국 상징할 명품도시로

정부세종청사 12월 27일 개청식… 7개 부처 5천5백여명 이전 마쳐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공식 개막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청식을 가진 정부세종청사에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하여 7개 부처, 5천5백여 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6개 정부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세종시 입주기관장 및 공무원·관련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공사 관계자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표지석 제막식, 테이프 커팅 행사 등을 통해 세종청사의 성공적 개청을 축하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과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의 정식 개청을 축하하면서, 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아직 근무여건이나 주변시설이 미흡해 고충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행정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 공무원 업무 매진 하도록 최선 환경 조성"

아울러 세종시 주민들에게도 "세종특별자치시가 21세기 선진 한국을 상징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고, 이전하는 공무원들을 따뜻하게 맞아 줄 것"을 부탁했다.

맹형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개청으로 정부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스마트워크·화상회의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지리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등 이전 초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개청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의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이던 정부세종청사 현장을 방문해 이전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전 공무원들이 업무와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정부세종청사 건립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2005년 10월)'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청사는 2008년 12월 착공 후 사업비 5천2백억원을 투입해 대지 14만9천제곱미터, 연면적 25만5천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올 11월 완공됐다.

현재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를 마치고 정상업무 중이며, 환경부도 입주를 마쳐 7개 부처, 5천5백여 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아울러 2, 3단계 사업도 2013~2014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연말까지 교과부·문화부·지식경제부 등 이전

정부세종청사는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도시와 호흡하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청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구현되고 있다.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다자간 영상회의 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등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내진구조 및 최첨단 청사보안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옥상녹화를 통한 냉·난방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등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과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을 취득하는 등 친환경 녹색청사로 건립되고 있다.

세종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긴급의료 서비스도 강화됐다. 그동안 세종시에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청주나 대전의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조치원성모병원이 시민을 위해 야간진료를 해 오다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주말만 운영하고 평일 야간진료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중단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이 조치원성모병원을 인수, 효성세종병원으로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3백65일 24시간 운영에 나섰다.

정부청사 단계별 준공시기 및 이전기관

단계		준공 시기	중앙행정기관(16개)	소속기관(20개)
1단계(12개)	1구역(2개)	2012년 4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2구역(10개)	2012년 11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
2단계(18개)	1구역(7개)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2구역(11개)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전기위원회·연구개발특구기획단
3단계(6개)	1구역(2개)	2014년 10월	법제처	–
	2구역(4개)		국민권익위원회	–
			국세청	
			소방방재청	
			–	한국정책방송원
			–	우정사업본부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월 31일 밤 11시 세종시 어진동 호수공원 수변광장에서 '새해맞이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가졌다. 이번 불꽃쇼는 본격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세종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대북 공연, 케이팝 댄스, 소망풍선 날리기, 대규모 조명과 레이저가 어우러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이 펼쳐졌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에는 11월 말까지 11만3천4백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27만명 ▲2020년 45만명 ▲2030년 70만명 거주를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명품 행정복합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강추위로 한강 결빙이 예년보다 20일 가량 앞당겨졌다. 올겨울 한강 결빙이 처음 관측된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수난구조대 부근 한강에서 수난구조대 쇄빙선이 출동로 확보를 위해 쇄빙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겨울 추워도 너~무 추워… 왜 그래?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전국에 한파… 1월에는 더 추워질듯

춥다. 나날이 더 춥다. 강추위가 전국을 덮치고 있다. 지난여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더위에 관한 각종 기록을 경신하더니 이젠 동장군 차례인가 보다. 기상청은 올 1월에도 어느 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올겨울 들어 처음 한강이 결빙됐다. 평년보다 20일 빠르고, 2011년보다도 21일 빨랐다. 12월 26일에는 서울 최저 기온이 섭씨 영하 14.5도를 기록했다. 12월 기온으로는 지난 1956년 이후 56년 만의 기록이었다. 춘천은 영하 18.6도를 기록했고,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23.5도였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다. 그런데 1월에는 더 추울 전망이다. 기상청이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3개월(2013년 1~3월)·1개월(1월 상순~하순) 전망'에 따르면 1월에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2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리며, 3월에는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1월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추운 날이 많겠으며, 대륙고기압의 확장 시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됐다.

대륙고기압과 저기압 영향으로 많은 눈과 비

중순에도 찬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의 변화가 큰 가운데 많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1월 하순은 되어야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다.

1~3월 기상 전망

월	평균기온	강수량
1월	평년(–5~3℃)보다 낮겠음	평년(18~55㎜)보다 많겠음
	·상순 – 평년(–5~4℃)보다 낮겠음	평년(5~14㎜)보다 많겠음
	·중순 – 평년(–5~3℃)과 비슷	평년(7~23㎜)보다 많겠음
	·하순 – 평년(–6~3℃)과 비슷	평년(3~18㎜)과 비슷
2월	평년(–2~5℃)보다 높겠음	평년(19~61㎜)보다 많겠음
3월	평년(4~9℃)과 비슷	평년(38~100㎜)과 비슷

자료 기상청

기상청이 분석한 날씨 동향에 따르면 이번 겨울 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그 기미를 보여 왔다. 10월 4일 대관령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으며, 이는 평년보다 8일 빨랐다.

11월 상순에도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중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춥고 비 오는 날이 많았다. 이미 11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1도 낮았고, 강수량은 평년 대비 1백22퍼센트였다.

12월 들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순에는 남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2월(20일까지 기준) 기온은 평년보다 3도 낮았으며, 강수량은 평년 대비 2백34퍼센트를 기록했다.

지구온난화로 연중 기온차 커지는 추세

최근 3개월(10월 1일~12월 20일)간 평균기온은 7.7도로 평년(8.8도)보다 낮았으며, 강수량은 1백53.8밀리미터로 평년(1백16.8밀리미터)보다 많았다(평년 대비 1백35퍼센트). 올해뿐 아니다. 2011년 1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지속됐다. 평균 최고·최저기온 편차가 각각 –3.8도, –4.1도로 1973년 이래 최저 2위를 기록했다. 2011년 1월 16일 부산에서는 –12.8도로 1915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구냉각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아니다. 기상청의 2013년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 한 해 기온은 평년(10~15도)보다 높겠고, 수량은 평년(1천32~1천8백39밀리미터)보다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지 연중 기온차가 커지는 추세에 있을 뿐이다. 지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2년간 연 평균 기온편차가 큰 연도를 살펴보면 랭킹 10위권에 든 해(1998, 2007, 2004, 1994, 1990, 2009, 2008, 2006, 1999, 1989)가 모두 1989년 이후이며, 2000년 이후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글·박경아 기자

김현경 기상청 기후예측과장

"북극 빙하 녹자 제트기류 힘 잃어 한파 남하"

"올겨울 유난스러운 추위는 지난여름 극성을 부린 더위와 관련 있습니다."

김현경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지난여름 북극 빙하가 기록적으로 녹은 것이 우리나라에 추위를 몰고 온 주요 원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극 빙하가 녹은 것과 추위가 어떻게 관련되나요.

북극 빙하는 햇빛을 반사하여 열 흡수를 방해하는데, 얼음의 면적이 적어지면 바다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바다가 이 열을 다시 방출하게 되니 북극 지역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지역과 북극 간의 온도차가 작아져 북극과 중위도 사이를 흐르던 제트기류가 힘을 잃고 남북 방향으로 서행하며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연초에 더욱 춥게 느껴진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미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으나 그때에는 영하의 날씨가 아니었기에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12월 들어 안 그래도 추운 계절에 기온이 더욱 떨어지니 더 춥게, 더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1월은 연중 가장 추운 달입니다. 2월은 되어야 태양고도가 높아지며 기온이 높아지는데, 1월 상순과 중순까지는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추위와 눈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유는.

원래 시베리아대륙 쪽 공기는 차고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의 경우 북극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시베리아 지역으로 흘러들며 어느 때보다 공기 중 수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차고 습한 대륙풍이 불면서 추우면서도 눈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부 지방의 경우 서해안의 수증기가 눈과 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겨울마다 혹한이나 폭설이 반복되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의아할 정도인데.

전 지구적으로는 기온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지구의 기온과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상승 추세에 있더라도 지역적으론 계절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올겨울 추위가 심한지.

이번 겨울 추위를 흔히 2005년 추위와 비교하는데, 당시에는 유럽, 미국, 동아시아 전체가 추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제트기류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북동부, 일본 지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는 것은 무심(無心)한 자연의 이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심한 존재가 아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어려움과 불행은 저문 해에 실어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는다. 새해에는 새로운 대한민국호가 모두의 희망을 싣고 출발한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그 어떤 고난과 난관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주위의 취업준비생들 경기 좋아져 활짝 웃기를

돌아보면 2012년에는 언제나처럼 많은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벅차던 생활에서 LH공사의 지원을 받아 월세 걱정이 덜한 집으로 이사를 했다. 학업에만 열중하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활동하던 학회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행사들을 치렀다.

국가적으로는 두 번의 선거를 통해 향후 몇 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표자들을 선출했고, 올림픽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 사이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했다.

2012년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움보다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 새해에 결심했던 대부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자는 결심은 귀찮음과 바쁘다는 핑계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중국어나 일본어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던 결심은 한 해 동안 외국어 책이라고는 한 권도 보지 않은 현재의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새해에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노력해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다음 새해에는 졸업을 하게 된다. 미래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열심히 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 4명의 자식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두 분이 새해에는 고생을 덜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많이 늙으신 외할머니는 앞으로도 언제나처럼 날 보며 건강하게 웃어주셨으면….

새해에는 지난해 선출한 새로운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덜어 주시는 것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희망해 본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많은 고민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 엉킨 실타래는 하나씩 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조금씩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특히 20대 중반인 내 주변에는 취업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취업준비생이 많다. 부디 새해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취업문이 더 열려 다들 원하는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또한 기부나 봉사가 더 활성화되어 함께 나누고, 함께 보듬어 가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다 보니 정신이 없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에서라도 함께 챙겨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걱정거리를 덜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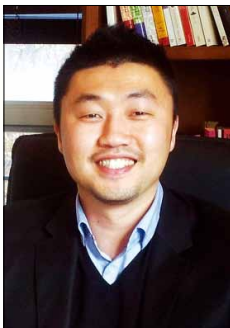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해 두 번의 선거를 통해 편가르기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이 한편으론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올 새해에는 모두가 화합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대한민국 파이팅! G

이영재
연세대 경영학과

올해는 모두가 화합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실패해도 남 탓은 말고 용기 있게 전진하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은 그나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다.

나는 남 탓하던 아이였다. 34세가 되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자 되겠다고, 멋진 사업가가 되겠다고 지난 11년간 다른 생각 않고 창업만 해왔다. 그 시간들 중 90퍼센트의 시간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늘 생각했다. 난 왜 돈 없고 백(인맥) 없나. 그것들만 있으면 나도 잘 될 텐데.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다.

지난 201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많은 실수도 있었다. "실수는 괜찮다. 하지만 같은 실수의 반복은 안 된다." 늘 스스로 새기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실수들을 토대로 올 한 해의 다짐을 적어본다.

남 탓하지 말자. 내가 제일 많이 해본 건데, 결국 내가 손해더라. 남들한테 바꿔라 바꿔라 해봤는데 내가 바뀌니까 남도 바뀌더라. 결국 내가 사는 걸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남 탓하니 그 순간 내 잘못은 보이지 않더라. 반면, 내 잘못을 보려고 하니 내가 성장하더라. 결국 다 나 좋은 일이다.

다른 사람을 믿어보자. 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상처받길 두려워한다. 그래도 용기 내보자. 마음을 닫아버리면 새로운 일도, 사람도 없다. 받기 전에 줘보자. 받았으면 더 줘보자. 주고 또 주다 보면 믿어주겠지 하고 내가 먼저 믿어보자. 상처를 기꺼이 각오하고 용기 내보자.

얼마 전 멋진 다큐멘터리를 봤다. 제목이 '사회적 자본'이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보았다. 신뢰와 소통, 협력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인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올바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축적되어야 할 자산이기도 하다. 사전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가 신뢰하고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게 돕는 무형의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경제가 좋아진다더라. 서로 믿으면 나라 경제도 좋아진다는데 믿다 보면 내 경제도 좋아지겠지. 또 결국 나 좋은 일이다.

적당히 먹자. 적당히 먹으면 탈이 안 난단다. 난 늘 배 터지게 먹어야 먹은 것 같았다. 이제 겨우 회사 사정도 좋아지고 내 밥벌이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적당히 먹을 생각을 해본다. 덜 불안해진 내 삶을, 이 행복을 다른 이에게도 전염시켜 보자. 나를 알고 가운데가 좋은 줄 알면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 하지 않나. 늘 가운데를 찾는 노력을 하자.

새해 우리나라와 사회에 바라는 부분과 나의 다짐이라는 주제로 글을 부탁받았다. 1980년에 태어난 새파란 내가 무얼 알고, 바라겠는가. 난 햄버거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배 곯은 우리네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와닿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밥 먹여 주는 나라에 살고 있다. 다 만들어 주셨다. 근데도 나는 그네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의 역할은 어디 가고 없었다. 다시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께 깊은 감사함을 전한다.

이제 나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그 어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우리보다 좀 더 잘 커서, 좀 더 잘, 좀 더 건강하게 해보거라"라고. G

세대간 통합의 징검다리 40대에 맡겨진 '웰에이징'

안종묵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젊은 시절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나이 먹기는 없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먹어간다. 사람이 가장 먹기 쉬운 것은 '나이'이며 가장 먹기 힘든 것은 '마음'이라고 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으니 이보다 정확한 말은 없을 듯하다.

40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이 먹기'이다. 나이 먹기와 관련하여 브래드 피트 주연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주인공은 80세의 모습으로 태어나 아기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는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거나 과거의 찬란한 시절을 되새김질하기보다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몸을 맡기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영화를 되새기며 나이 먹기에 민감한 40대로서, 웰빙이 아닌 '웰에이징'(well-aging)을 생각한다. 육체는 비록 늙어가며 나약해지지만, 젊은 시절 가졌던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나이 먹기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라보자. 사실 필자는 요즘 각종 미디어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을 피한다. 미디어마다, 그리고 필진마다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각각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가 보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대 간의 갈등이 강하게 표출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갈등이다.

2013년 새 정부의 키워드는 수차 정치권에서 강조된 것처럼 '통합과 새 정치'다. 이번 선거결과가 2030 vs. 5060의 갈등이었다는 점에서 40대의 역할이 있다. 필자는 40대가 세대 간 통합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대는 2030세대, 그리고 5060세대가 갖고 있는 희망과 고통을 모두 갖고 있는 야누스와 같다.

2030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은 꿈과 열정,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젊음이다. 반면 5060세대에는 제2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이들은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동안의 삶과 달리 제2의 인생을 통해 이루지 못했던 예전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다. 5060세대는 2030세대와 달리 인생의 맛을 알고,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사고를 가졌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두 세대 가운데 위치해 있는 '낀 세대'가 40대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40대는 2030세대의 좌절을 다독여주고, 5060세대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면서 두 세대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2030세대에겐 그들이 갖지 못한 경험을 공유해 주고, 5060세대에겐 열정을 함께 나누면서 갈라진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밝은 새해를 만들어 나가야 할 몫이 우리 40대의 역할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나이 먹기'인 40대의 웰에이징이다.

필자는 가끔 20~30대 시절의 얼굴과 40대인 지금의 얼굴을 비교해 본다. 링컨이 "40대 이후의 얼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듯, 40대 이후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삶의 역정이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스스로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 새해엔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 보자 다짐해 본다. G

저성장 시대 대비해 나라의 기틀 다시 세우자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세월이 주는 지혜가 있다. 세상사에는 건너뛰는 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콩을 뿌리면 콩을 거두고 팥을 뿌리면 팥을 거둔다. 이따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체로 세상사는 과거에 해온 대로 지금이 펼쳐지고, 지금 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진다.

국가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아니다. 개인이 주역이며 국가는 그들이 그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조역일 뿐이다. 당분간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나라의 형편을 직시하고 단기적인 혜택보다 장기적인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를 이끄는 리더들은 이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허황된 일을 자꾸 도모한다면 그가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11년 아문센과 스콧은 각자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도전을 하였다. 아문센의 성공과 스콧의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 두 팀의 명운을 결정한 것은 준비를 중시하는 아문센의 철학과 태도였다. 아문센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난 후 자신의 나약함과 지구력의 부족함을 깨닫지 말고, 그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권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즉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더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가 야심 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마치 쓰나미처럼 다른 부분들을 압도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가 야심 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나라의 기틀을 반석 위에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비효율과 낭비를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전개함과 아울러 누군가에게 돈을 쥐여주는 온정주의 정책이 아니라 오래되어서 낡아버린 체제의 곳곳을 구조개혁하는 현명함이다. 새 정부의 지도자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통을 요구하는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시민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정치가 만들어내는 정치 체제를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다. 개개인마다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런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기를 소망한다. 환부를 가려버린다고 해서 환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다수의 시민은 그런 정책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국가는 훌륭한 시민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려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시대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합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더 많은 현명한 시민과 그런 정책들을 주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를 기대한다. G

역지사지 리더십으로 '대화의 시대' 기적을 이루길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사상 처음 여성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한다. 1990년 아일랜드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다.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 사회였던 아일랜드에서 '정말 의외로' 여성변호사이자 법대 교수 출신인 메리 로빈슨이 7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로빈슨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세계적 기업들을 아일랜드로 적극 유치했다. 당시 마이크로 소프트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기업환경이 좋아진 아일랜드로 몰려들었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여럿이 이 대열에 참가하였다. 당시 봇물을 이루던 신자유주의 물결과 더불어 철저히 친 시장주의화한 아일랜드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녀의 뒤를 이어 두 번의 임기인 14년을 재직한 메리 매컬리스도 여성이었다. 아일랜드는 21년간의 여성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계속한 결과 드디어는 그들을 8백년간 지배했던 숙적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월하는 '기적'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세월이 지나 자본주의 4.0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를 급습한 금융위기는 아일랜드도 강타하여 구제금융을 받는 등 크게 휘청였지만 현재 빠르게 회복 중에 있다.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은 시대를 정확히 읽은 여성대통령의 비전과 그에 걸맞은 남보다 앞선 개혁정책, 그리고 반대를 대화로 아우르며 강력하게 그 정책을 추진했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맞아 '아일랜드의 기적'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사회갈등과 불화의 봉합 역시 시급한 과제다. 선거 후유증으로 한쪽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고, 선거결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더욱 크게 부각되어 새로운 걱정거리가 됐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맞아 '아일랜드의 기적'을 기대해 본다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통합, 민생, 안보 등 새 정부와 이를 맞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문제들은 결코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헝클어진 실을 단칼에 잘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알렉산드로스의 해법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은 상대를 품어 안고 머리를 맞대 대화로 함께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정말 대화에 익숙해 있지 않다. 대화(對話)란 '독백(獨白)×2'가 아니라 우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뒤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즉 서로 들어주고 말하는 의견의 '교환'이 대화인데, 우리의 경우 남이 얘기하는 동안 다음 얘기할 것을 준비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곧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

새 정부와 우리 사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위해 조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듬고 진지하게 대화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정말 '대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성공의 문은 열린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의 결과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양쪽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G

미래의 희망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

10대는 즐거운 학교생활… 20대는 밝은 미래비전 갈망

2013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아 왔다. 새해,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요즘 10대와 20대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무엇을 희망하고 있을까. 새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거리로 나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이경민 기자

10대 청소년들의 고민은 역시 학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시영(13) 양은 "학교 끝나고 바로 또 학원을 가야 하니 쉴 수가 없어서 힘들다"며 "학교 수업 시간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학교 수업을 4교시까지만 하고 방학도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 동안 공부 말고 체험이나 여행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더 친해질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차별받거든요."

"학교수업 줄어들고 놀 시간 많았으면…"

이 밖에도 임남혁(13) 군, 이광빈(13) 군, 강다영(11) 양 등 많은 초등학생이 학교와 학원 수업의 병행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임승현(14) 군은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벼락치기 공부 해서 보는 시험보다 평소의 학교 공부를 통해서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유시온(15) 군은 "학교폭력이 심해 학생들이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를 새 대통령께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얼마 전 대입 수능을 마쳤다는 20세 엄수민 양은 "새해에는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해서 멋진 대학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대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취업 걱정"

20대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스펙' 관리에 대한 걱정, 20대 중·후반에서는 취업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20대들은 현재 고민과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대부분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대학원에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하는 김은수(남·27)씨의 이야기다.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에게 2012년은 더없이 혹독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취업 재수, 삼수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통령께 이러한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이 듣고, 토론하고, 또 많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다"며 "그래도 아직은 젊으니까 잘 헤쳐 나갈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소라(여·22)씨는 "현재 최대 고민은 다름 아닌 자기관리"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점, 스펙, 시간 모두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 스스로 그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잃어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생 최혜인(여·22)씨는 "졸업 후 진로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제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지 못했지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가끔은 의문이 들기도 해요. 2학년밖에 안됐는데 왜 벌써 취업 걱정을 하고 외국어 공부에 목을 매야 하는지 의문이죠."

"육아 걱정 없이 사회생활 했으면 해요"

이외에도 인터뷰를 위해 만난 대부분의 대학생이 '취업 스펙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학년에 상관없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 박신영(남·23)씨는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이 많다"며 "반값등록금이 꼭 실현됐으면 한다"며 바람을 나타냈다.

직장에 다닌다는 정태영(남·29)씨의 고민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비정규직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고, 육아를 해 나가야 하는데 벌써 불안감이 밀려와요. 또 언제 돈을 모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고요. 아직 20대임에도 노후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회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올해 여름 결혼했다는 직장인 김유리(여·29)씨는 "직장 여성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눈치 안 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복지 여건이 좋아졌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어른들이 말하듯 '앞날이 창창한' 1020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들의 열망도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혼자보다는 함께, 빨리보다는 멀리, 나누기보다는 더할 수 있는 2013년이, 그리고 앞으로의 5년이 되길 바란다"는 김은희(여·26)씨의 말처럼 1020세대는 새해, 새 정권에는 좀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어느 때보다 희망하고 있다.

글·성영주 객원기자

이경민 기자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대 와야

하우스푸어·신용불량자들에게도 재기의 발판 마련을

2013년의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다. 계사(癸巳)년을 맞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많은 30~40대가 바라는 바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 전한다.

"하우스푸어의 고통 헤아린 대책 아쉬워"

집값이 상승세를 타던 2006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샀다. 이후 한동안은 집값이 오름세 였다. 오르는 집값에 '빚을 얻어서라도 집 사길 잘했다'며 한때 자축을 하기도 했다. 당시 집값은 이자를 상쇄하고도 충분할 만큼 올랐고, 우리 부부는 집을 팔아서 갚으면 되리라는 생각에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 그게 화근이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은행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자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사겠다는 사람은커녕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우리는 2007년 현재의 집을 샀을 때 가격보다도 싸게 다시 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역시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은 솔직히 대책이 없다. 이 집을 팔아 대출 빚을 갚고 나면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보증금이 남질 않는다. 그렇다고 집을 갖고 있자니 이자를 감당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정말 미칠 것만 같다. 정부는 우리 같은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새 정부는 아무쪼록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민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40대 자영업 이성철씨)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현실적 보장을"

"임신 중이다. 회사는 임신한 직원을 위해 배려해 주고 있지만, 적잖은 유능한 친구들이 3년 육아를 한 뒤 직장에 다시 복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는 직장인으로서 보육·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30대 회사원 정하진(가명)씨)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다"

"아이가 두 돌이 다 돼 가는데 많이 못 놀아 준다. 지난 추석 연휴 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아 주니, 아침에 '아빠 아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는 아이를 보는데, 기분이 그렇더라. 앞으로는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30대 회사원 김희석(가명)씨)

"신용불량자들도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취직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이 3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들의 가족을 합치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70만명이 넘을 것이다. 소액대출자나 장기신용불량자에게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서 신용불량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
(40대 무직 송창용씨)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보이는 사회를…"

"희망이 보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가 되고 신입 사원이 최고경영자(CEO)나 창업자가 되는, 이런 희망 넘치는 사회는 정녕 꿈으로 그치는 걸까? 정치와 교육만 바뀌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식을 여러 명 두었지만 가장 혼자 벌이로도 온가족이 먹고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맞벌이를 하고,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 벌어도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됐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인 것 같다.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 주고, 교육제도를 바로잡아 학벌 중심의 풍토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 보면 학벌만 좋을 뿐 실력이나 자격은 부족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 (40대 회사원 구영주씨)

"대형마트 가격 표시제 의무화 지키자"

대형마트 판매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줬으면 좋겠다.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과자, 라면, 음료수 같은 품목들의 정확한 가격이 명기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하다. 서민용 저가품목이라며 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적잖은 물건들의 가격을 계산대에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횡포다. 어떤 물건이 더 싸고 좋은지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가격도 모르면서 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30대 주부 홍수영씨)

"가사도우미 고용 때도 세금 공제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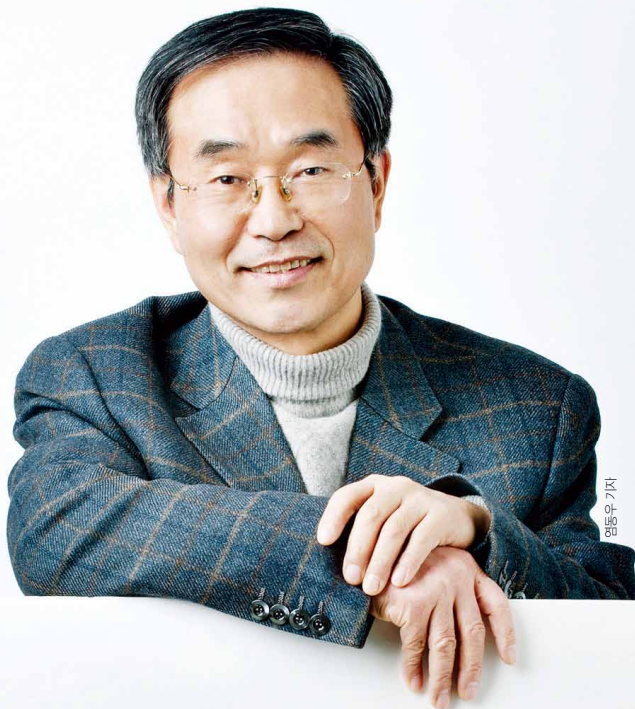
아기를 키우는 집이다. 조선족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평균 1백50만원 정도 된다. 문제는 그분들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 고용주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세금감면이 되지 않는다.

듣자 하니, 싱가포르의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며 그중 거의 20% 이상에 달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제한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수요보다 오히려 공급이 많다 보니 가사도우미 비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저는 입주 아이 돌보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하여 고용주는 합리적인 비용을 주고 그들도 정당한 세금을 내며, 고용주는 정당하게 육아양육비 명목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고급 여성인력들이 계속 일을 하게 하려면 합리적인 보육비용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1백만원 이하로 들고, 가사도우미들도 세금을 내면, 정부는 그 세금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증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중요한 어린이집 교사나 학습지 교사들이 젊은 이들 최후의 직업처럼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 (30대 전문직 강승미씨)

글·이범진 기자

염동우 기자

자녀 취업이 걱정 청년 일자리 해결해야

노후대책 불안… 현실적인 정책으로 민생 보살펴 달라

거리에서 만난 '5060세대'의 고민은 한결같았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는 것. 이들은 닥쳐오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새 정권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무엇을 '바꿔달라'는 구체적인 주문보다는 '제발 잘 좀 해줬으면' 하는 우려 섞인 바람들이 많았다. 5060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당동에서 독서실을 운영 중인 임권자(여·56)씨는 "주변 친구들의 공통된 고민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면서 "돈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고 했다. 임씨의 말이다.

"우리 세대가 '하우스푸어' 세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힘들게 돈 모아서 겨우 아파트 한 채 가진 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집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에 겁마저 나요.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새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경제를 살려서 집값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성해경(남·58)씨는 "우리 세대들에겐 주어진 일에 비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온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만큼이고, 또 이렇게 벌어도 버는 것에 비해 나가야 할 돈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새 정부에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50대 이상도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60세대'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녀 문제였다. 정은조(남·56)씨는 "자녀 취직이 가장 걱정"이라면서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녀 결혼과 전셋집 장만해 주는 게 걱정

주유소를 운영 중인 허계순(여·54)씨는 "자녀 결혼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큰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허씨는 "자녀 결혼시키려면 전셋집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라며 한숨지었다.

허씨는 또 "직장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우리 딸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미리부터 출산을 미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성대통령이니 이런 여성 관련 정책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업가인 성규암(남·62)씨도 "자녀 결혼과 집 장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성씨의 말이다.

"예전과는 다른 게 요즘엔 전세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아예 결혼 자체를 못 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자녀 결혼시켜 놓으면 우리에겐 남는 돈이 없으니 노후가 정말 불안하죠. 국가에서 이런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어요. 그나마 나오는 게 연금인데 그것도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들의 노후대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대책 아쉽지만 '퍼주기식 복지'는 싫어

5060세대는 그들이 당면한 노후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서 내세운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내놓은 복지정책에 대해 "퍼주는 복지는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법무사로 일하는 윤태용(남·65)씨는 "유럽에 경제위기가 온 것처럼 복지정책이랍시고 나라 살림을 펑펑 쓰기만 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결국 그 돈이 젊은이들에게 빚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성규암씨는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복지'에 대해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로는 복지, 복지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죠. 증세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사실 세금을 제대로 잘 걷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내서 세금부터 잘 걷으면 복지재원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인 전옥이(60)씨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왜 부잣집 아이들 급식비까지 세금으로 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민 잘 챙겨주고 '깨끗한 정치'해 주세요

가정주부인 김순애(59)씨는 "서민들 힘든 것 잘 알아주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씨의 말이다.

"부자는 안 챙겨줘도 잘사니까, 서민 잘 챙겨주고, 부정부패 척결해 주고, 제발 깨끗하게 정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대통령으로서 여자답게, 깨끗하게, 멋있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받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낙하산 인사 좀 하지 말고, 인사문제 잘해서 다 같이 잘사는 나라 만드는 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박금선(여·56)씨는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경제 살리기' 등 세 가지를 새로운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자질로 꼽았다. 박씨는 "사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서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귀기울여 듣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이들이 바로 지금의 5060세대들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삶을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고민이 곧 새 정권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 이야기 들어주는, 소통하고 협의하는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성규암씨의 말처럼 국민이 새 정권에 바라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서민들과 소통하고, 민생을 돌볼 줄 아는 새 정부가 되길 바라본다. G

글·성영주 객원기자

기획특집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잔치 장애를 넘어 "우리는 하나"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스페셜올림픽은 각국을 대표하는 지적장애 스포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더불어 지적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백20여 개국에서 총 3천3백여 명의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9년 미국 보이시 동계스페셜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2013 대회는 오는 1월 29일부터 8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펼쳐진다.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우리는 똑같다"

지적장애인들과 가족들, 스포츠를 통해 세상과 화합 기대

올겨울 설원을 녹일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장애와 편견'을 넘어 우리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무대는 바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다. 오는 1월 29일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서 3천3백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각국을 대표해 한국을 찾는 지적장애 스포츠인들이 누빌 축제의 현장을 살펴보고 동시에 조직위원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피겨스케이팅 스타 김연아 선수, 2002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거스 히딩크 감독, K팝 스타 '원더걸스',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글로벌 배우 김윤진, 그리고 그룹 '부활'의 리더이자 예능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국민할매' 김태원.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들이 개런티가 없어도 반드시 참석하는 행사가 있다. 바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www.2013sopoc.org)과 연계된 행사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선수 및 감독 등 전세계 1백20여 개국에서 3천3백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면 총 1만5천여 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이벤트다.

유명인사 · 스타들도 '특별한 올림픽' 동참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편견과 차별이라는 벽에 둘러싸인 지적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세상 밖으로 성큼 걸어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개막식은 영화 〈왕의 남자〉 〈해운대〉 등으로 유명한 이병우 음악감독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리는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대회 기간 동안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스노슈잉,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플로어하키 등 7개 종목(55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이어진다. 장애 등급에 따라 경기가 세분화되지만 예선 탈락은 없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에게도 리본을 선물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자'는 대회 이념을 구현하게 된다.

조직위는 올림픽 참가를 위해 3~4일 전 한국을 찾는 해외 선수와 관계자들을 위해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외 선수단은 개최지에서 3시간 이내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연수원 등의 숙박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미리 마련된 체육시설에서 연습도 가능하다. 이들을 도울 자원봉사자도 준비를 마쳤다.

방송인, 스포츠스타, 정·재계 유명인사 등이 대회에 참가하는 1개 국가를 선택해 응원하고 후원해 주는 스페셜프렌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황영조(마라톤 메달리스트), 이상묵(서울대 교수), 김병찬(아나운서), 김미화(개그맨), 양준혁(전 야구 선수), 이경애(개그맨), 이창명(개그맨), 김동성(전 쇼트트랙 선수) 등 수십 명의 스타가 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12개 분야 자원봉사자 3천여명도 선발 마쳐

이번 대회에는 총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예정이다. 통역, 경기진행, 행사지원 등 12개 분야, 25개 직종에 자원봉사자가 이미 선발된 상태다.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번째 개최국이 된다. 엘리트스포츠인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은 기록과 순위 경쟁을 하지만 스페셜올림픽은 금·은·동메달 이외에 4위부터 8위까지도 리본을 수여하는, 도전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특별한 올림픽이다.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동계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한 적이 없는 국가들에 대회 참가의 기회를 주는 '스페셜핸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몽골, 파푸아뉴기니,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등 아시아 7개국을 초청해 대회에 참석케 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올림픽은 네이버 해피빈 재단과 함께하는 1대1 매칭에서도 만날 수 있다. 조직위는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지난해 1월부터 후원사, 기업·단체를 통한 소액 모금 활성화 프로모션을 추진해 최근까지 약 1억원을 모금했다. 후원 방법은 외국선수단의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현금후원, 대회에 사용하는 물자를 후원하는 현물후원, 매칭된 국가의 경기현장 방문과 응원을 하는 응원후원 등이 있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경기 종목

종목	경기장	세부종목
알파인스키 (9개 세부종목)	용평리조트	슈퍼대회전(3), 대회전(3), 회전(3)
크로스컨트리 스키 (10개 세부종목)	알펜시아 노르딕센터	50m(C), 100m(C), 500m(F), 1km(F), 2.5km(C), 2.5km(F), 5km(F), 7.5km(F), 10km(F), 4명×1km Relay(F) ※(C):Classical, (F):Freestyle
스노보드 (9개 세부종목)	알펜시아리조트	슈퍼대회전(3), 대회전(3), 회전(3)
스노슈잉 (10개 세부종목)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25m, 50m, 100m, 200m, 400m,800m, 1600m, 5km, 4명×100m Relay, 4명×400m Relay
피겨스케이트 (5개 세부종목)	강릉빙상경기장 용평돔	싱글(Level1~6), 페어(Level1~2), 아이스댄싱(Level1~4), Unified 페어(Level1~2), Unified 아이스댄싱(Level1~4)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 (9개 세부종목)	강릉빙상경기장	25m, 55m, 111m, 222m, 333m, 500m, 777m, 1000m, 1500m
플로어하키 (3개 세부종목)	강릉생활체육센터, 강릉실내체육관, 관동대체육관	남자팀 경기(1), 여자팀 경기(1), Unified 팀 경기(1)

소액모금 스페셜해피매칭 캠페인도 벌여

스페셜해피매칭 캠페인은 기관과 개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응원과 자원봉사까지 친구와 가족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아무도 찾지 않을지 모르는 경기장을 따뜻하게 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은 1만원짜리 입장권(스페셜 패스) 하나로 본대회 전경기(개·폐막식 제외)를 관람할 수 있다.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의 스키리프트, 스키렌털, 눈썰매장, 정선 레일바이크, 동해 바다열차, 송어축제 등 인근 유료관광시설을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대회 기간 중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G

글 · 김대현 기자

운동 때면 집중하는 '홀트학교 박지성'

플로어하키 공격수 최경재 선수… 2세 때 사고로 뇌 성장 멈춰 '기적의 생존'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축구화를 신거나 하키 스틱을 잡은 선수들이다. 그중에서도 플로어하키 대표팀 최경재 선수는 단연 눈에 띄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 만 2세 때 뇌의 성장이 멈춘 경재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 기적처럼 성장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에서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할 경재의 연습 현장을 찾아갔다.

최경재 선수는 운동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홀트학교에 재학중인 최 선수는 운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있었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플로어하키팀 대표로 출전하는 최경재(19) 선수는 홀트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이화원 체육교육부장과 농구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경재가 먼저 인사말을 건네왔다.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홀트학교에서 만난 경재는 훤칠한 키에 일반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게다가 발음도 정확했다.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정말 지적장애인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했다.

경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페셜올림픽 플로어하키 선수가 된 건 기적이다. 어릴 적 입은 작은 상처로 인해, 경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어머니 김영숙씨의 말이다. "경재의 뇌는 지금도 절반이 비어 있어요. 사고가 났던 두 살 이후 뇌가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서 40일 만에 깨어나기 전까지 유명 대형병원 의사들은 모두 경재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경재가 누워 있는 동안 저는 경재의 귀에 대고 하루에 1백 곡 이상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우리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지금도 의학적으로 경재는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적장애아 전문교육 받으며 웃음 되찾아

김영숙씨는 경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서울을 떠나 공기가 좋은 고양시로 이사까지 했다.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오길 바라며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다. 일반 초등학교에 경재를 입학시킨 것도 이런 바람 때문이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애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경재가 일반학교에 다니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친구들의 괴롭힘과 학사운영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경기(驚氣)가 시작됐어요. 당시 선생님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수학교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경재가 특수학교에 입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수학교는 매년 정원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해야만 전학이 가능했다. 그런 와중에 경재와 인연이 닿은 곳이 바로 홀트학교다.

지적장애아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홀트학교에 입학한 뒤 경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 "아니오" 정도만 하던 경재의 언어 구사력이 크게 향상됐고 잃었던 웃음도 되찾았다. "경재는 유독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하키선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엄마를 닮아 운동신경도 좋은 편이에요. 처음에는 축구를 하고 그다음에 농구도 배웠어요. 지금은 플로어하키를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고 규칙을 배우는 과정이 경재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어머니 김영숙씨)"

올림픽 두 번 출전… 큰 대회에 강한 면모

경재가 플로어하키를 시작한 건 지난해 3월이다. 홀트학교 이화원 체육교육부장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처음 하키팀을 창단했다. 이화원 부장은 "3년 전쯤 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다녀왔는데, 연수기간에 기구를 운영하는 스포츠가 일반 공놀이보다 지적장애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로어하키팀을 창단했고 전국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도 거뒀습니다(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플로어하키팀은 전국에 4개팀이 있다).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경재는 처음 플로어하키를 배우기 시작할 때 자책골(자살골)을 넣고 기뻐했을 정도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비단 경재만의 얘기가 아닐 정도로 팀의 전력은 엉망이었다. 장비도 변변치 않아 청소도구를 이용해 스틱을 만들어 써야 했다.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이 부장과 학생들은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을 키웠고 이제는 스페셜올림픽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는 또 다른 기적을 일궜다.

특히 경재는 팀 내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다. 백넘버 7번, 기적의 공격수로 다시 태어난 것. 시청각 장애가 있는 경재지만 빠른 몸놀림과 박진감 넘치는 속공이 주특기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에서 경재는 주목할 만한 선수 중 한 명이다. 운동신경도 뛰어나지만 이미 국제대회를 두 차례나 경험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 각각 축구와 농구 종목에서 한국 대표로 선발된 적이 있다.

어머니 김영숙(왼쪽)씨는 최경재 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웃음과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은 플로어하키팀 코치를 겸하고 있는 홀트학교 이화원 체육교육부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경재는 운동하는 순간만큼은 집중력이 향상되는 아이입니다. 하키를 하는 순간에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평상시 볼 수 없던 승부욕도 살아납니다. 중국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축구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교체를 거부하고 경기 내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제가 '홀트학교의 박지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이화원 부장)"

"지적장애아들에겐 적합한 특수교육이 중요"

경재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정말 좋다"고 말했다. 경재는 "(골을 넣으면) 조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번 대회에서) 10골 넣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고 묻자 "없어요. 아니…(누굴 좋아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라고 대답했다. "금메달을 딸 것 같으냐"고 묻자 "아마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일반학교로 치면 경재는 대학생이다. 홀트학교에서 중등·고등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하지만 경재는 요즘도 6개월마다 뇌파검사를 받는다. 만약 운동 중에 다치기라도 하면 지적장애가 악화되거나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머니 김영숙씨는 "경재가 원하면 계속 운동을 하게 해줄 생각"이라고 했다. 김영숙씨는 경재보다 어린 지적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특수학교를 잘 알아볼 것을 권하고 싶어요.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을 해주니까 오히려 기적처럼 아이가 성장하는 게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G

글·김대현 기자 / 사진·김승완 기자

스페셜올림픽에 남다른 애정 가진 가수 김태원

"아들의 '특별함'을 알기에 희망을 믿어요"

대중에게 '국민할매'로 불리는 록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씨. 1월 29일부터 8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스페셜올림픽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자폐아의 아버지이기도 한 김씨에게 이번 동계스페셜올림픽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신영 기자

김태원씨는 인터뷰에서 "이번 동계스페셜올림픽 경기를 직접 참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는 자폐를 가진 '특별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KBS '남자의 자격' 등 지상파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김씨는 언뜻 스페셜올림픽과 무관해 보였다. 더욱이 그는 1980년대 중반 데뷔 이후 록음악처럼 거친 인생을 살아왔다. 소위 우리 사회의 '바닥'을 경험한 불세출의 기타리스트로 통하는 인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그의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동안의 방황을 정리하고 가수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아버지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김씨는 요즘도 아버지가 던지는 '무언의 눈길'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런 김씨에게 또 한 차례 시련이 찾아온 건 지난 2000년이다. 그의 아들이 자폐를 가진, 조금은 특별한 아이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아들의 '특별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에게는 시련이자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씨가 스페셜올림픽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배경이다.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필리핀에서 엄마, 누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게 됐습니다. 우현(아들 이름)이가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국내 여건이 좋아지면 돌아올 겁니다."

둘째 아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둘째를 낳았을 때 우리 부부는 어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라고 다 어른은 아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 바람에 첫째도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주처럼 키웠던 아이였는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속앓이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제서야 효도라는 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를 맡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장애 아이를 둔 나경원 전 의원과 언론 인터뷰 때 만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정치인이라는 느낌보다 아픔을 가진 엄마라는 점을 알았죠. 고통의 단계를 넘어 저와 같이 현실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짐작이 됩니다. 서로 이해를 하게 됐고, 제가 '언제든 필요하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올초 홍보대사를 제안받았습니다."

일반 올림픽보다 관심이 덜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선진국은 모든 분야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 문화 수준도 올라가야 하듯,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애인들과 무언가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는 개념도 옳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려준다는 개념이 돼야 합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일도 나누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길 희망합니다. 내 것을 나눈다는 개념은 중진국이고 돌려준다는 인식이 선진국 아닐까요. 저는 그런 시대를 기다리며 불씨를 살리는 중입니다. 그 불길이 쉽게 타오르거나 번지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둘째가 자폐를 가진 아이라는 걸 공개한 이유는.

"아이와 함께 꿈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 자연수명이 더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현이와 같은 아이를 둔 가정에 작으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밝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사전에 작가에게 밝히지 않아 당일 촬영장에서 놀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폐아를 둔 부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자폐아는 내적으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종교에서 말하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각본을 짜고 시간이 흐르면 부모에게 천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희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그 아이를 일반 세계로 끌어올리려다 보면 불행이 초래됩니다."

조선DB

지난해 5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나경원 조직위원장·오른쪽) 홍보대사 위촉식. 김태원씨는 이날 스페셜올림픽을 후원하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장을 찾아 시구를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꽤 바빠졌지요.

"솔직히 그동안 저는 바빠지고 싶어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람이 이뤄진 게 한 3년 됐어요. 이런 상태로 한 30년쯤 흐른다면 권태로워지거나 힘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행복할 따름이죠. 오랜 기간 소망했던 걸 얻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가진 게 유명세든, 아니면 작은 명예든 간에 그걸 쓰기에도 바쁩니다."

인기를 얻는 데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계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의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인생역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3년 전에는 제게 전화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축복받은 시간을 보내며 주변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느낌을 주는 게 싫거든요. 내가 힘들 때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휴대폰에 오래된 문자들이 많은데, 제가 해야 할 약속들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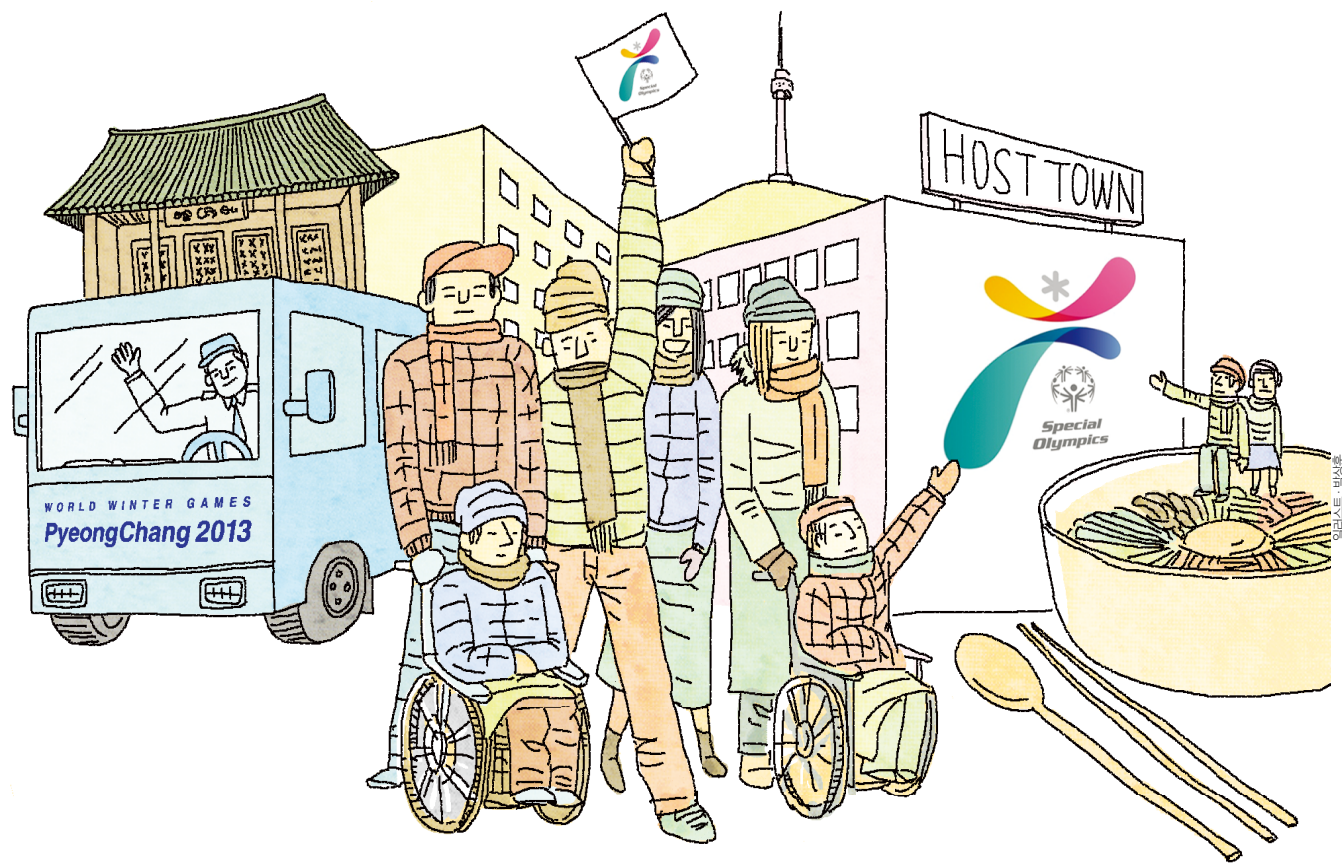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가정이 부유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게 현실이죠.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여러 개 짓는 게 소원입니다. 특히 돈 없는 가정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벌면 다시 사회에 돌려줄 겁니다. 지구가 이처럼 아름답고, 또 진보된 별이라는 걸 입증해야죠."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을 직접 관람할 계획인가요.

"지금 스케줄 짜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참석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기를 직접 보고 싶으니까요." G

글·김대현 기자

일러스트 · 박상훈

편하게 3박4일… "최상의 경기력 보여줘요"

지자체·기업 등 57곳서 대회 개막까지 선수단 보살펴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아시는가? '호스트타운'은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독특한 프로그램. 지적발달 장애인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이 대회에서 조직위와 자치단체, 대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등은 힘을 합쳐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숙식, 통역, 안내, 먹거리,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이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막식 4일 전에 입국한 각국 대표단에게 개최국의 시차·기후·음식·문화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현지 주민들을 이해하며, 사전 훈련을 통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비스포츠(Non-Sports) 프로그램이다.

스페셜올림픽은 8세 이상 전문기관에서 인정받은 지적장애, 지능지수(IQ), 인지지체, 학습 및 적응능력 기능 제약이 있는 지적발달 장애인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대회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은 ①이 같은 지적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존중해, 그들에게 더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②그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③선수들이 컨디션 조절과 문화교류를 통해 여독을 풀고,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호스트는 자치단체, 대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등 프로그램 운영단체가 맡게 된다. 호스트는 도시, 타운, 마을 등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있는 지역사회(개최지로부터 3시간 이내의 지역)가 담당하며, 선수 4명당 코치 1명이 동행해 불편함이 없도록 이들을 보살펴준다. 단체숙박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표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일부 홈스테이 방식으로도 운영된다.

단체숙박 원칙… 원하면 홈스테이도 가능

휴식, 훈련, 개최국 문화체험, 지역사회 교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가국의 요청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 대회장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17곳, 기업체 11곳, 대학 7개교, 종교단체 10곳, 수련원 7곳 등 총 52개 기관·단체들이 운영주체로 참가했다. 이들은 언어가 다른 외국 선수들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참여 선수들을 응원하며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수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마련했다.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처럼 호스트타운 내 스포츠 훈련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체육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집회시설을 제공키로 했다.

몸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빠지지 않았다. 조직위원회는 인천공항→환영센터(송도)→호스트타운→선수촌(평창, 강릉)을 오가는 교통시설을 갖췄으며, 운영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선수들이 지역 내 관광지를 탐방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위한 수송 차량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역·안내 등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실시

국제행사의 꽃인 '자원봉사'도 빠지지 않았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자원봉사는 일반자원봉사와 언어자원봉사 2가지로 나뉜다. 일반자원봉사자는 대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지원자를 가리키며, 언어자원봉사자는 각 나라 선수 25명당 1명씩 조직위가 배정한 통역 및 연락관(DAL)을 말한다.

2백11명의 통역과 52명의 책임관, 지원요원 5명과 자원봉사자 10명 등 호스트타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은 대회 개막 전까지 실시된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은 2013년 1월 26~29일까지 3박4일간 실시된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운영본부는 대회기간 중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글·이범진 기자

일러스트 · 신용호

스페셜올림픽 '어울림교육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 관람하면 교육적으로 좋아요

스페셜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니다. 대회 기간에 선수 건강과 리더십 프로그램, 세계청소년회담, 어린이 선수 프로그램 등 각종 비(非)스포츠 분야의 행사들이 많이 진행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울림교육 프로그램'이다. 어울림교육 프로그램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학교 교육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발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학생 지도교안이다.

어울림교육 프로그램 지도교안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 등 총 4단계로 되어 있다. 교육 주제는 '나와 상대방의 차이점과 유사점 인식', '상호 토론을 통한 이해 증진', '타인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단어와 언어 사용' 등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김주용 어울림교육 팀장은 "지난 학기 동안 일선 학교에서 실제 이를 운영해 본 결과 학생들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태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어울림교육 프로그램 사례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은 경북 영천 청통초등학교 김민정 선생님은 "어울림교육은 학생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장애인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친구로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 장성 월평초등학교 이현규 선생님은 "예전에는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한 주 가량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의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어울림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내내 미술, 체육, 장애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이해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어울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국립특수교육원 김영표 교육연구사는 "신체나 지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솔직히 어려운데 어울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이상흔 기자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다.

문화 소통에 장애의 장벽은 없다

평창과 강릉에서 뮤지컬갈라콘서트·K팝 공연 등 다양한 행사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기간에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등 5개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콘서트, 난타공연, 뮤지컬갈라콘서트, K팝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지적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들이 소통하는 '세계청소년회담'도 마련돼 있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의 공식 명칭은 '장애인 및 지적장애인단체 초청 프로그램'이다. 구호가 '공감마을로의 초대'인 이 프로그램은 1월 30일 오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 선수 환영식과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의 퍼레이드로 시작한다. 오후에는 알펜시아리조트 콘서트홀에서 마술사 이은결과 발레리나 김주원 등이 공연하는 매직&발레가 펼쳐진다. 같은 시각 강릉시 관동대학교에서는 '인디밴드 페스티발'이 열린다.

1월 31일 오후엔 콘서트홀에서 창작 오페라 〈봄봄〉이 상연된다. 김유정의 소설 〈봄봄〉을 원작으로 한 이 오페라는 언어감각과 극적인 구성을 우리 전통의 놀이판 형식과 서양 오페라의 어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춘천을 배경으로 한 토속적인 무대와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담은 아리아로 다채로운 타악기 연주를 선보인다. 강릉원주대에선 강릉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주회·콘서트도

다음 날인 2월 1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 악단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백50여 차례의 연주회를 열었다. 단원들은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1천 번 이상 연습을 되풀이한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최근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D-100 기념음악회'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정부 간 고위급회의' 등 국제 행사에 초청받아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강릉원주대에선 신시뮤지컬컴퍼니가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공연한다. 지적장애인 박모세씨가 출연할 예정인 이 무대에서 관객들은 국내 유명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한번에 볼 수 있다.

2월 2일과 3일 저녁 강릉원주대와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선 동 시간대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의 공개방송이 예정돼 있다. 3일 저녁 콘서트홀에서는 장애인 7명으로 이뤄진 타악연주단 '레인보우 두들소리'의 난타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행사 일정상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공연이 예정돼 있다. 클래식에서 판소리,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한데 모아 펼치는 이 공연은 간단한 음식을 제공해 '스탠딩 파티'처럼 다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진행된다. 출연진은 팝핀 현준을 비롯한 13명이다. 이 공연의 출연진은 야간에 '스페셜 나이트 댄스파티'도 주최한다. 댄스파티가 끝난 후에는 알펜시아리조트 외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강릉원주대에선 퓨전국악 밴드 '훌'의 무대가 열린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의 훌은 한국 고유의 국악과 전자 음악을 섞은 퓨전 음악을 펼치는 밴드다. 이날 공연은 장구를 여러 방면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악기와 소통을 이루며 세상을 두드린다는 '장구치리'다.

문화행사 일정별 공연 프로그램

장소	1월30일(수)	1월31일(목)	2월1일(금)	2월2일(토)	2월3일(일)	2월4일(월)
알펜시아리조트	09:00 군악대 퍼레이드					
뮤직텐트		14:00 세계청소년대회 노리단 공연			19:30 MBC '위대한 탄생' 공개방송	19:30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 공연 21:00 스페셜 나이트 댄스파티 22:00 스페셜 불꽃놀이
콘서트홀	19:30 스페셜 매직&발레	19:30 클래식공연 20:10 오페라 〈봄봄〉	19:30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공연 20:10 온누리오케스트라 공연	19:30 2차 뮤지컬 갈라 콘서트	19:30 국립국악관현악단 20:20 레인보우 두들소리 공연	
관동대학교	19:30 인디밴드 페스티발					
강릉원주대학교		19:30 강릉시립교향악단 공연	19:30 1차 뮤지컬 갈라 콘서트	19:30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 공개방송	19:30 한국 무용 공연	19:30 국악그룹사운드 '훌' 공연 20:20 총체예술 공연

※추후 공연 내용 및 시각이 변경될 수 있음

김유정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 오페라 〈봄봄〉은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담은 아리아로 다채로운 타악기 연주를 선보인다.

세계청소년회담 갖고 장애인 편견과 차별 토론

전시회 및 체험 문화행사도 예정돼 있다. 전시회는 국내 지적장애인 예인의 예술세계를 느낄 수 있는 '에이블 아트 갤러리', 스페셜올림픽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스페셜올림픽 역사 사진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얼굴을 재편집해 대형 걸개로 장식할 '참가선수 포토 갤러리 Wall', 대회 기간 영광과 감동의 순간을 디지털 액자에 담아 전시할 '그날의 선수 디지털 사진 갤러리' 등이 있다.

체험문화행사로는 '우유 과학 교실',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뷰티클래스', '전통 도예체험', 'e-스포츠&게임 캐릭터 플레이 존', '지적장애인 소재 영화 상영'이 있다.

이 밖에 1월 27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세계청소년회담은 각국 청소년 89명이 참가한다. 이 행사는 장애 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리고 배움으로써 서로 잘 몰랐던 점을 이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인쇄물을 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글·박희석 기자

개·폐막식 예술감독 맡은 이병우 영화음악감독

“전 세계 손님들에게 한국의 판타지 전달”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은 특별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영화음악 감독이자 기타리스트인 이병우 감독이 예술감독을 맡아 한 편의 이야기 같은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스페셜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사진|김희 기자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을 맡은 이병우 감독은 개막식에 '결혼식' 콘셉트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우는 한국 음악계와 영화계에 특별한 존재다. 1980년대 중후반 그와 조동익이 낸 앨범 '어떤 날' 1, 2집은 한국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3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들어봐도 음악의 톤이나 분위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시간을 한참 앞질러 등장한 '명반'인 셈이다.

'어떤 날' 이후 이병우는 자신의 음반 작업 외에 영화음악 작업을 해왔다. 〈왕의 남자〉, 〈장화 홍련〉, 〈괴물〉, 〈마더〉 등 흥행 영화 뒤편에는 언제나 그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음악들은 영상과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왔다. 그런 그가 새로운 작업에 도전한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의 예술감독을 맡았다. 그를 만났다.

영화음악 감독은 여러 번 맡으셨지만 예술감독은 처음이시지요. 음악뿐만이 아닌 무대연출이나 흐름 등도 고민해야 하는 자리 같습니다.

“예술감독은 이를테면 개·폐막식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스토리 구성을 제가 했어요. 그동안 열렸던 올림픽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콘셉트를 재미있게 가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결혼식'을 테마로 한 거죠.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개막식에 '결혼식'이라는 행사의 형식이 도입되는 건가요?

“네. 공식행사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녹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개막식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팡파르도 결혼 축하 음악으로 나오고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의아해하겠죠. 그러면서 선수들이 마치 전 세계에서 온 하객처럼 들어서게 되고요. 개막 선언이나 축하 연설 등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도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연설하는 한쪽에서는 심장이 계속 뛰면서 그게 점점 커지는 식인 거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축하공연은 아기가 태어나는 울음소리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결혼 말고 인생에서 두 번째 전환점이 바로 자녀를 낳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개막식에서 이제 아이가 탄생했는데 스노맨이 탄생한 거예요. 스노맨은 다른 친구들과 좀 달라요. 자라면서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지요. 친구들이 도와줘야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얼음판 위로 갔는데 스노맨은 그 위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친구들은 부자연스럽고요. 스노맨의 특기를 보고 친구들이 응원을 해주고 환호를 하는 장면들이 묘사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이 스노맨의 어머니예요.”

조.석환

기타리스트 이병우 감독의 작업실.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를 형상화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돌본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머니는 스노맨을 돌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도 스노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인 스노맨에게 기댄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적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뿐이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대개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 즉 스노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일 의지하는 것도 아이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게 돌보는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스페셜올림픽은 장애인 올림픽과는 또 다르잖아요. 지적장애인의 올림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획한 것도 있나요?

“지적장애인들 특히 다운장애인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흥을 돋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 중이고요. 가능하면 냄새까지 개막식에 사용해 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에는 레인보우라는 특별한 머플러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행사도 마련되나요?

“대합창이 끝나고 나서 지적장애인 사물놀이팀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춤을 출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사물놀이팀이 상모를 돌릴 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카프를 돌리며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도 스페셜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폐막식은 어떤 점에서 차별화할 예정인가요.

“일본과 중국의 개막식을 보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다 나왔더라고요. 부채춤도 나오고, 국악도 나오고… 또 자국의 전통문화를 많이 보여주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전통적인 것을 보여줬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전통적인 것 외에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어요. 사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뜨거운 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번 개·폐막식 공연에서는 '역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 악기 같은 것도 전통악기보다는 잘 못 보던 것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타비'도 출연하고요. 사실 제가 디자인해 만든 것을 넣는 게 좀 그래서 안 넣으려고 했지만 새로운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개막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평창의 작은 곳에서 열리는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을 통해 한국이 준비한 판타지의 세계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개막식, 폐막식을 돌아보며 참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회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

글·하주희 기자

“격려와 응원으로 더 잘하는 모습 확인을”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시선 변화의 큰 계기 확신

2013년에는 대한민국 평창과 강릉 일원에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 개최국이 됩니다.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에는 1백20여개 국가에서 3천3백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7개 동계 종목(55개 세부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엘리트스포츠인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은 기록과 순위 경쟁을 하지만 스페셜올림픽은 금, 은, 동메달 이외에 4위부터 8위까지도 리본을 수여하는 도전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특별한 올림픽입니다.

스페셜올림픽은 IOC에서 유일하게 올림픽이란 용어 사용을 허가한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입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누이동생인 케네디 슈라이버(Kennedy Shriver) 여사가 1962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일 캠프를 개최한 것이 시초이며, 이를 계기로 1968년 시카고의 솔저필드(Soldier Field)에서 제1회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페셜올림픽 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의 축제인만큼 그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스페셜올림픽을 통해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 그들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도전정신을 격려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스페셜올림픽이 일조를 하게 됩니다.

당당한 사회구성원임을 세상에 알려

국가적으로는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저변을 확대해 장애인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등 사회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선진복지국가라고 자부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동계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 일반 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그들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작은 움직임이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강릉 등 강원도 지역의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페셜올림픽이 지적장애인의 지구촌 축제인 만큼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 등으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공존의 가치 가르치는 어울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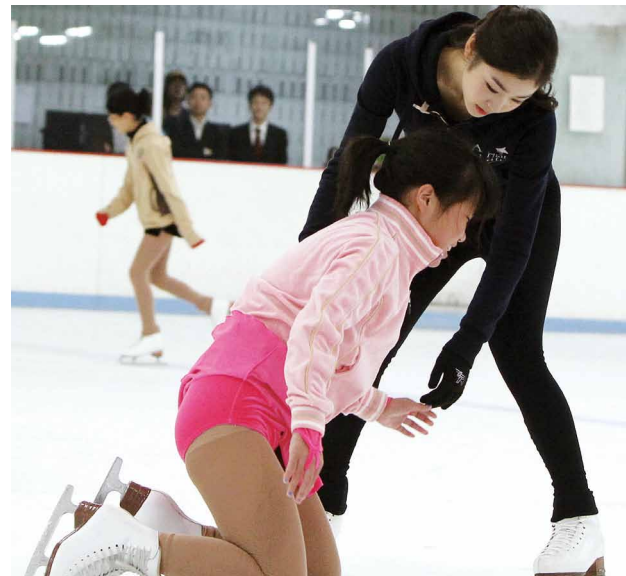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스페셜올림픽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부문화 정착과 자원봉사 활성화, 가족지원·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등 미래의 국민복지 증진과 통합스포츠 환경 정착 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닙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은 다양한 비스포츠 분야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울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울림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아이들은 폭력과 왕따문제 등으로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입시 성적의 경쟁만을 부추길 수는 없습니다.

어울림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려와 공존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어울림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의 중추적인 구성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적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일반인들은 스페셜올림픽에서 끝없는 도전과 열정을 보여주는 지적장애인들을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 경험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막연한 시선으로 머물러 있던 선입견들이 이러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통해 직접 접하게 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지장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동계스페셜올림픽에 출전하는 피겨스케이트 선수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스페셜올림픽이 교육현장에서,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경기가 치러지는 대회 현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드는 ‘특별한 올림픽’

마지막으로 스페셜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하여 커뮤니티 내의 수용과 포용을 확산시키는 특별한 활동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선수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이 더욱 관용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태도에 변화를 줍니다. 바로 이러한 힘 때문에 우리는 이 스페셜올림픽의 활동을 ‘스페셜’하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면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이 도전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비장애인이 함께해 줄 때 가능합니다.

스페셜올림픽이 끝났을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유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월 강릉과 평창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

글 · 임병수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정부의 해외인턴십 지원을 받아 3개월간 싱가포르 풀러턴 베이 호텔에서 인턴생활을 한 이태호씨는 근무시간 외에도 외식업 경험을 쌓기 위해 유명 맛집을 찾았다.

정부 해외인턴십 수기 최우수상 받은 울산대 이태호씨

"힘든 삶? 꿈을 그릴 수 있어 행복해요"

정부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시장을 국내외로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외인턴 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 2천5백17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만60명이 해외인턴을 다녀왔거나 연수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정부 해외인턴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에서는 정부의 해외인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현장체험이 소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해외인턴 프로그램은 혼자만 경험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 해외인턴 체험수기·UCC·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태호(26,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4학년)씨는 "취업과 진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내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외식기업 인턴십 단번에 합격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열린 '제1회 정부 해외인턴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에서 자신의 생생한 체험담을 소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날 발대식은 정부 해외인턴십 수료자(멘티)와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직장인(멘토) 등 1백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진로에 대한 조언과 정보의 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씨는 이공계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해외플랜트 인턴십에 지원하는 것을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국제교육원에서 싱가포르 유명호텔을 대상으로 외식기업 해외인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학교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자기소개서를 정성껏 작성해 제출했다. 이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국내면접, 3차 싱가포르 호텔관계자 화상면접까지 단번에 통과했다. 최종합격한 11명 중 이씨 혼자 남자였다.

평소 전공관련 자격증 획득에 열성

외식기업 인턴십의 경우 합격자는 국제교육원에서 제시하는 싱가포르 최고급 외식기업 명단 중에서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곳을 고를 수 있었다. 이씨는 바(Bar) 근무가 가능한 5성급 호텔 풀러턴 베이 호텔을 지원했다.

"주방이나 조리분야에서는 조리학과 출신들과 경쟁이 안 되리라 생각했고 객실 쪽은 적성과 안 맞아 매장 운영과 마케팅, 고객 접대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바 근무를 지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체면적 6백97제곱킬로미터(서울시 면적 6백5제곱킬로미터)의 도시국가다. 금융·관광산업이 발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3백23달러로 세계 11위(2012년 IMF 기준)다. 특히 외식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북 '미슐랭'에 등재된 스타 셰프와 레스토랑이 수두룩할 정도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씨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풀러턴 베이 호텔 바의 경우 야외풀장과 탁 트인 전망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사교모임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씨는 이곳에서 바텐더 보조격인 바 러너(Bar Runner)로 근무하며 싱가포르 외식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제 일이 '바를 배우는 사람(Bar Learner)'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죠. 주류 창고와 바를 쉴 새 없이 달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주에 체중이 4킬로그램 빠졌을 정도로 고된 일이었지만 보람은 있었다. 이씨는 "베테랑 바텐더와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또 호텔 측에서도 바 러너 말고도 바텐더, 서빙, 메뉴준비 같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덧붙였다.

3~4년 전만 해도 이씨의 꿈은 여느 대학생처럼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된 삶을 꾸리는 것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도 이씨를 압박했다. 어머니가 식당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월세와 식비 내기에도 바빴다. 지금은 여동생이 현대중공업에 취직해 상황이 나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이씨는 학자금 대출과 근로장학금,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에 쫓기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격려했다.

이씨는 군복무를 마친 2009년,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복학을 미루고 6개월간 인근 조선소에서 막노동과 용접일로 비용을 마련해 이듬해 호주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갔다.

호주 어학연수는 이씨가 외식산업에 대해 눈뜨는 계기가 됐다. 호주에서 이씨는 바리스타, 오퍼레이션(바 운영), 카지노 갬블링 서비스(카지노 고객 접대관련 자격), 주류취급 자격증 등 서비스업 관련 자격증을 4개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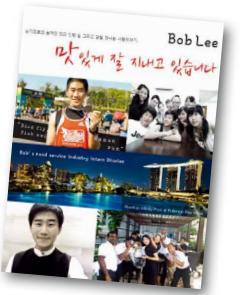
귀국 후에는 호주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한 분야를 물색한 끝에 서울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과정을 수강했다.

주중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이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1년 동안 반복했다. 왕복 8시간, 달리는 차에서 공부하고, 토요일 밤에는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피시방에서 정액권을 끊고 의자에 앉아 잠을 청했다.

"기회를 준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에 감사"

이씨의 노력에 감동한 음식연구원 강사는 이씨를 2011년 TV 드라마 〈여왕의 만찬〉 음식세트 관련 스태프로 추천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꿈을 좇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들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잘 찾아보면 좋은 기회도 많아요.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에 감사합니다."

이씨의 좌충우돌 싱가포르 인턴연수는 이씨의 개인 블로그(Blog.naver.com/bob8608 '해외인턴십-싱가포르')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인턴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요령과 은행계좌 개설, 이동통신사 가입 등 싱가포르 생활에 요긴한 정보들이 보석처럼 담겨 있다. 또 남들이 잘 안 가는 곳만 골라 다닌 맛집탐방기를 비롯해 싱가포르의 외식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생생한 사진과 함께 20여 편 실려 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 www.ggi.go.kr
SNS twitter.com/go_globalintern www.facebook.com/go.globalintern

자활명장에 선정된 청소용역업체 크린케어 주보순 이사

"내 앞길은 내가 책임지고 개척해요"

청소용역업체 크린케어 주보순(50) 이사는 직원들 사이에서 '주대포'로 불린다. '대포'처럼 시원하고 깨끗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지난해 12월 1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크린케어 사무실에서 만난 직원들은 "주 이사님과 청소하러 가보면 정말 시원하게 일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2년 자활명장으로 선정된 주 이사를 만나 그의 인생역정을 들어봤다.

김대현 기자

주보순 이사는 회사 설립을 주도했음에도 '이사' 직함을 고수하고 있는데 자신은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을 하는 근로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올해의 자활명장으로 크린케어 주보순 이사를 선정했다. 주 이사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3년간 부산 강서구 자활센터에서 청소사업단에 배속돼 공공근로를 했다. 그는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8년 청소 전문 자활공동체인 '늘푸른사람들'을 만들었고 2010년에는 크린케어의 설립을 주도했다. 이 회사에는 주 이사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다가 자활에 성공한 3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크린케어는 부산 강서구청, 부산진구청, 연제구청 산하 자활센터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립한 사업체다. 이 회사가 주목받는 것은 정부 지원에 의지해 살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이 모여 독자 생존방식을 터득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점 때문이다.

주 이사의 직함은 '이사'지만 그는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을 하는 근로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주 이사는 회사 살림을 살피면서도 한편으론 바닥 광택을 내는 청소 전문가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주 이사는 지난 2002년 폐암을 앓던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 그는 한 달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살았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가 책임져야 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큰아들과 당시 학생인 둘째 아들이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눈을 질끈 감고 식당 등을 전전하던 그는 어느 날 강서구 자활센터에서 청소용역단 활동을 권유받고 이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약 8 뒤 그는 동병상련의 과정을 거친 동료들과 자활공동체인 크린케어를 설립, 당당한 직업인으로 살고 있다.

크린케어 설립을 주도하셨는데 직함이 대표가 아니라 이사입니다.

"사실 저는 명함도 없어요.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근로자일 뿐입니다. 제가 강서구 자활센터에 있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즈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시작한 일입니다. 행정을 잘 모르고 해서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이 대표를 맡으셔서 우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로자 대표로 이사라는 직함이 붙은 것뿐입니다."

언제부터 청소 관련 일을 했나요.

"강서구 쪽에서 식당일 등을 하다가 '먹고살려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도배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2004년 청소사업단에 들어가 일을 배웠어요. 막상 해보니까 집안 청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청소하는 방법도 배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2008년 자활센터를 벗어나 독립하게 된 배경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었어요. 그럼 자활센터에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 실장님이 뜻맞는 분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일을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처음에는 '늘푸른사람들'이라는 명칭으로 강서구청 자활센터에서 알게 된 3명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산진구와 연제구에도 나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분들과 합쳐 13명이 참여하는 광역자활공동체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크린케어예요. 정부 지원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게 힘써주신 김일삼 부산진구자활센터 실장님께 감사합니다."

몇 년 새 꽤 성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장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 13명이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35명입니다. 월 급여와 관리비 등을 정산할 때면 '정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청소업을 하고 있나요.

"크린케어는 청소와 관련된 일은 다 합니다. 바닥 청소, 환풍기 청소, 정화조 청소, 방역 등도 하고 있어요. 부산시교육청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부 학교에 상주하며 일을 합니다. 상주팀이 아니면 대행팀에서 일하는데, 주말 위주로 전문성이 필요한 청소 일감을 받아 출장을 갑니다."

올해 직원들의 급여를 올릴 계획인가요.

"우리의 주요 수입원이 학교에 상주해서 청소하는 일인데, 부산시교육청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한다고 전해왔어요. 학교에서 조금 보전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청 같은 큰 기관의 일을 따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전국에서 1명만 뽑는 '자활명장'에 선정된 주보순씨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일하는 보람도 있고요.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들과 그럭저럭 먹고삽니다. 큰아들 수술비도 필요하고 해서 더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더 늘릴 계획인가요.

"무조건 직원수를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학교 청소용역 계약이 추가되거나 관공서 등 상주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 서비스 교육도 강화하면서 차근차근 헤쳐나가야죠. 지금은 연말이고 내년 계약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일하는 중입니다."

일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게 마련인데.

"조금씩 양보하면서 일하면 직원 간에 불화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없어요. 내가 일할 수 있고 또 열심히만 하면 내 회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솔선수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현장에서 청소일 한다고 무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땐 우리끼리 술 한잔 하고 털어버립니다. 이건 내 직장이고 내 직업이니까요. 더 열심히 하자고 서로 격려해주죠."

자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정부나 주변에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내 앞길은 내가 개척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가 튼튼해지면 나도 좋고 회사도 좋잖아요. 정말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내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족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G

글·김대현 기자

흰개미 탐지 삽살개 “나도 공무원이다”

문화재 보호 위해 현장 투입… 마약 탐지·인명구조견도 맹활약

개는 후각이 사람보다 1만 배, 청각은 2백배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뛰어난 후각능력으로 인명구조와 마약류·폭발물 탐지, 흰개미 탐지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는 견공들. 비록 동물이지만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는 여느 공무원 못지않다.

목조 문화재를 지키는 삽살개 외에도 마약·폭발물 탐지견과 인명구조견도 현장을 누비고 있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경산삽살개육종연구소’ 내 훈련장. 삽살개 단디(2세)가 나무토막 이곳저곳을 킁킁거리더니 우뚝 멈춰서는 동작으로 조련사에게 뭔가 찾아냈음을 알렸다. 단디가 멈춰섰던 나무토막에서는 나무 속을 파먹고 있던 흰개미들이 발견됐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우리 토종 견종인 삽살개가 흰개미 탐지견 훈련을 받고 있다. 흰개미 분비물 냄새에 반응하는 훈련을 반복한 지 넉 달째부터 단디는 흰개미 서식처를 척척 찾아냈다. 또 다른 삽살개 깜(5세)은 아직은 후보다.

권기진 부소장은 “흰개미 탐지견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디와 깜은 앞으로 현장적응훈련을 거쳐 올 상반기에는 실제 현장조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문화재 2천3백여 건 중 목조 문화재는 3백20여 건.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마다 10~20건의 목조 문화재가 흰개미 피해를 입고 있다. 한반도 기후 온난화로 흰개미 피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재청은 3백20여 건의 목조 문화재 전체에 대해 5년마다 흰개미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육안만으로 흰개미 서식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흰개미 탐지견을 이용한다. 그러나 현재 흰개미 탐지견은 세 마리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요문화재 168곳에 방범견 파견 협의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한국삽살개재단, 경산삽살개육종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삽살개 두 마리를 흰개미 탐지견으로 훈련시켜 왔다.

한국삽살개재단 하지홍 이사장(경북대 생명과학과 교수)은 “삽살개는 다른 견종에 비해 성격이 온순하고 침착하면서도 집중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외산품종의 개라면 그냥 지나칠 곳도 꼼꼼하게 잘 찾아낸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단디와 깜을 포함해 모두 여섯 마리의 삽살개를 흰개미 탐지견으로 훈련시킬 계획이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김계식 과장은 “1차로 탐지견이 흰개미를 찾아내면 2차로 극초음파 탐색기로 서식여부를 확인한 뒤 살충제를 뿌려 방제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삽살개는 한반도 동남부에 널리 서식하던 토종개로 신라시대 왕실과 귀족들이 군견으로 싸움터에 데리고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삽살은 ‘귀신·액운(살)을 쫓는다(삽)’는 의미. 일제 강점기 군용모피 자원으로 지정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다. 1969년 경북대에서 복원작업을 시작해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됐다.

우리의 토종견인 삽살개가 문화재를 지키는 흰개미 탐지견으로 훈련받고 올해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공익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견공은 더 있다. 하루 평균 8만여 명이 드나드는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입출국장에서는 제복을 입은 세관직원과 함께 청사를 누비는 마약·폭발물 탐지견을 종종 마주칠 수 있다.

세관에 근무하며 ‘마약청정국’ 명성 지켜

세계 각국에서는 효율적인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탐지견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987년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폭발물 탐지견 여섯 마리를 기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0년부터 관세청에서 마약 탐지견을 운용하고 있다. 또 2001년에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가 설립돼 자체적으로 탐지견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 거래가 거의 없는 마약청정국의 명성을 누려왔으나,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국제 범죄조직이 한국을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탐지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마약 탐지견 31마리가 인천공항 세관과 김포공항 세관 등 전국 8개 주요 공항 세관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 탐지견은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신변에서부터 휴대품, 수입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소포를 감시하여 밀반입되는 마약류 탐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52건(지난해 10월 말 기준)의 마약류를 찾아냈다.

관세청에서는 탐지견의 후각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공기 1편당 20~30분 정도 일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 핸들러(Handler·개를 훈련시키거나 운용하는 사람)와 수의사가 탐지견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살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다른 팀과 교대근무하도록 배려한다.

이 밖에 재난 현장에서 실종자 찾기 분야도 견공들이 활약하는 주무대다. 2011년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자살로 의심되는 실종신고가 접수돼 수색 개시 3시간 만에 인명구조견 ‘마니’가 실종자 최 씨를 발견했다.

실종자·건물 매몰자 수색에 능력 발휘

앞서 2011년 7월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4층 상가건물 붕괴현장에서 구조대원 2백여 명이 사고발생 20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찾지 못했던 매몰자를 인명구조견이 투입 한 시간 만에 찾아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방방재청 산하 중앙119구조단에서 세 마리,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19마리 등 모두 22마리의 인명구조견이 활동하고 있다. 인명구조견은 국내 도입 초기 민간단체에서 양성하기도 했으나, 2011년 7월부터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탐방객들이 순천만 갈대 탐방로를 거닐고 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올 4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린다.

순천만의 너른 정원으로 오세요

4월 20일~10월 30일… 주박람회장 · 국제습지센터 · 수목원으로 꾸며

1백일 앞으로 다가온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란 주제로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초 정원박람회이자 세계적 환경축제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세계적 생태도시', '남해안 중추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의 하나로 평가받는 순천만은 십수 년 전만 해도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다. 22.4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은 짱뚱어, 참게, 망둥이를 잡는 주민들과 철새들의 터전일 뿐이었다. 지금과 달리 5.6제곱킬로미터의 갈대군락지를 찾는 방문객도 많지 않았다. 이처럼 한적했던 순천만이 조명받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다.

그간 순천시는 순천만을 보존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05년 순천만을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해 개발 행위를 막고, 국유지를 매입해 습지로 바꿨다. 방문객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갈대밭을 걸을 수 있도록 나무 통로를 만들고, 전경을 조망할 수 있게 등산로와 전망대도 조성했다. 철새들을 위해선 전봇대와 전선을 없앴다.

박람회장은 순천만 훼손 막는 '에코 벨트' 역할

이런 노력에 따라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를 비롯한 철새 개체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월 '50종·1만2천마리'였던 개체 수는 2010년 1월 '123종·2만마리'가 됐다. 갯벌에서 서식하는 참게, 짱뚱어, 갯지렁이,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도 눈에 띄게 늘었다.

순천만은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등 철새 123종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다.

'생태 보고' 순천만의 가치는 안팎으로부터 인정받았다. 2006년 1월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 '람사르 협약'은 순천만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2011년 5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프랑스 여행 잡지 〈미슐랭 그린가이드〉는 최고 점수인 별 3개를 줬다. 이보다 앞선 2008년 6월 정부는 갯벌로선 처음으로 순천만을 국가 명승 제41호로 지정했다.

안팎의 호평에 순천만을 방문하는 사람은 크게 늘었다. 2002년 10만명에 불과했던 방문객이 2010년엔 2백95만명이었다. 이에 따른 경제 창출 효과는 연간 1천2백억원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방문객 증가는 환경 훼손을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됐다. 인근에서 진행되는 도심(오천동, 풍덕동, 남제동 일대) 팽창도 순천만을 위협했다.

2008년 1월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했다. 순천만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정원박람회장과 습지센터는 방문객을 분산시켜 '순천만 훼손'을 막는 '에코 벨트'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심 가까이 조성된 박람회장은 방문객들의 순천시내 요식·숙박업체 이용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1백19개 인프라 사업 3월부터 운영체제 전환

또 박람회조직위의 목표처럼 관람객 4백만명을 채울 경우 정원박람회는 생산유발효과 1조3천3백23억원, 부가가치 6천7백90억원, 일자리 1만1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일거양득의 생태문화축제인 셈이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 9월 주최기구 세계원예생산자협회(AIPH)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확정했다. 이후 순천시 풍덕동과 오천동 일대 1백11만2천제곱미터 부지에 착공된 박람회장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총 공사비 2천억여 원이 투입된 정원박람회장은 주박람회장, 국제습지센터, 수목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주박람회장(56만4천제곱미터)엔 순천만 호수정원을 비롯해 환상정원과 네덜란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스페인, 파키스탄,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10개국이 참여한 세계정원이 조성된다. 한방약초정원을 비롯한 테마정원 60여 곳도 들어선다.

10만5천제곱미터의 부지에 자리한 국제습지센터는 주제영상관과 에코시티관, 생태체험관, 체험습지 등으로 구성된다. 1백80석 규모의 주제영상관은 '순천만 이야기'를 3D만화로 보여준다. 에코시티관은 정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세계 각국의 정원을 소개한다. 체험습지에선 수생동식물과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수목원(25만3천제곱미터)은 다양한 나무로 연출되는 정원수 도감원, 순천의 대표적인 화훼 생산 수종인 철쭉으로 구성된 철쭉원, 다양한 산책길 등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정원 속에 깃들어 있는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주박람회장 동천공연장에선 매일 순천만 배경설화를 뮤지컬로 만든 〈1천년의 정원〉이 상연된다. 문화의 거리,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을 연계한 종합 예술행사도 개최한다.

순천시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도로교통, 도시환경, 시민참여, 숙박보건, 관광문화, 행정안전 등 6개 분야 1백19개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올해 2월까지 정원박람회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3월부터는 운영체제로 전환해 손님맞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순천정원박람회는 순천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시대정신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원박람회 주제인 '생태와 자연'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G

글 · 박희석 기자

‘광주의 진산’ 무등산 국립공원 됐다

21번째로 지정… 입석대·서석대는 천연기념물 제465호

‘빛고을’ 광주의 진산(鎭山) 무등산(해발 1,187m)은 봄 철쭉, 여름 숲, 가을 억새, 겨울 눈꽃 등 사계절 경관이 뛰어난 산이다. 북한산과 같이 도심을 끼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주말이면 엄청난 등산인파가 등산코스마다 붐빈다. 실제로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은 2010년 기준 북한산 8백50만명에 이어 6백67만명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두번째로 꼽힌다.

그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1988년 월출산과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4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지정 고시된 것이다.

눈 쌓인 광주 무등산의 천연기념물인 서석대의 설경이 눈부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무등산의 자연생태계는 멸종위기종 10종, 희귀식물 24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2천2백9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소나무와 참나무가 우점종을 점한 가운데 편백나무, 서어나무, 노간주나무 등이 곳곳에 건강한 숲을 이루고 있다.

자연경관은 어디서나 수려하며, 특히 정상의 주상절리인 입석대와 서석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뿐 아니라 지형·지질학적으로도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입석대와 서석대는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을 정도다.

‘걸림돌’ 사유지 문제 시민들 재산권 포기로 해결

문화경관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보물 2점, 사적 1점, 천연기념물 1점, 중요민속자료 1점 등 국가 지정문화재 5점과 지방 지정문화재 12점 등 총 27점의 문화유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국립공원이 다른 육상 국립공원 15개소와 비교한 결과, 자연생태계의 야생동식물 서식 종류가 가야산·주왕산·월출산보다는 많고 속리산보다는 한 단계 뒤진 13번째 된다고 밝혔다. 지질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 뛰어난 자연경관은 설악산·속리산·지리산 등에 이어 여섯번째에 해당한다. 이어 문화경관은 주왕산에 이어 16개소 중 14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데는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의 의지가 가장 컸다. 사실 무등산은 도립공원의 30.23제곱킬로미터보다 훨씬 더 확대된 75.42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사유지 문제가 대두됐으나 광주시민들은 기꺼이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형식의 시민운동을 전개, 마침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시민 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영국에서 시작한 시민환경운동이다.

광주시민들은 무등산을 “광주·전남의 진산이며, 포근하고 후덕한 어머니의 산”이라 부른다. 동서남북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모가 나지 않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다. 또 도심 10킬로미터 이내에 해발 1천미터 이상을 산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느냐며 자랑한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명산이고 진산인 것이다. G

글·박정원(월간산 기자)

영암·해남 4계절 관광지로 키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올 초 본격 착공… 10조7천7백여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상공·덕송리 일원(2천96만제곱미터)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전라남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기업도시가 들어설 구성지구는 서울에서 3백30킬로미터, 인근 광주에서 50킬로미터, 목포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국지도 49호선 등 교통 접근이 용이하다.

전체 면적의 26.8퍼센트가 공원 녹지

이곳은 또한 남도의 온화한 기후와 주변에 다도해와 영암호·금호호, 달마산, 두륜산, 고산 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7년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1시간45분대 접근이 가능해지고, 인근에 무안국제공항(30킬로미터), 목포 신외항(10킬로미터), 제주도(1백50킬로미터) 등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영암에서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F1 자동차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함평나비축제, 진도바다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등 4계절 내내 지역 축제가 있어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향후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까지 총 1조1천37억원이 투자되는 구성지구 기업도시는 생태관광, 바이오 에너지, 지역문화체험, 종합 레포츠가 어우러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 조성되며 골프장, 신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구성지구 기업도시는 전체 면적의 26.8퍼센트를 공원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인근의 영암호·금호호 지역의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 녹색관광레저 도시로 개발된다. 철새 등 동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영암호 주변에 충분한 녹지공간과 생태서식지를 조성하여 생태관광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바다, 호수, 내부 수로와 어우러져 휴식과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레저스포츠 도시이자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로 조성된다.

올해 초 착공되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감도. 인근의 영암호·금호호 지역의 야생 동식물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 녹색관광레저 도시로 개발된다.

연간 4백만명의 관광객 유치 기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측은 “앞으로 약 1만8천3백명(7천3백20가구)의 인구가 상주하게 될 기업도시 건설은 10조7천7백여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1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완공 후에는 연간 4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조1천37억원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 반병호 관광레저도시과장은 “기업도시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4차선 진입도로(총 사업비 2천7백56억원)의 조성을 위해 연차별로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완공되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

글·이상훈 기자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재활센터 생겼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개원… 한번에 90명 함께 합숙하며 치료교육

최근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한 27명이 희생되었다. 사건의 범인은 컴퓨터 게임광에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몇 달 전 서울의 여의도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주범 역시 외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묻지마식 범죄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 중독, 왕따,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겪는 청소년의 잠재적 범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불안 요소들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없을까?

지난해 12월 17일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개소식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소년 단체 등의 청소년계 인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보다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따돌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청소년에게 치료재활·생활보호·자립지원·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시설

지원 대상은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18세의 청소년이다.

입소인원은 1회당 장·단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90명이 정원이다. 입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단기와 장기 프로그램이 각각 2주와 3개월이지만 청소년의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의 입소·퇴소 여부는 7명으로 구성된 '입·퇴소 판정위원회'가 의뢰기관 신청서와 초기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디딤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모두 거주형 보호시설에 입소해 공동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점이 독특하다.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명이 함께 지내며 사회적응행동 및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인터넷·게임 중독, 은둔형 외톨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디딤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구조화 집단상담 등의 일반상담부터 모래·놀이·미술·음악·원예·드라마·특수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이 밖에 학교수업을 미처 이수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초등교육, 중·고등교육 학력인정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교육도 실시한다.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도 있다. 센터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동물·원예 체험장에서는 아이들이 동물을 기르거나 텃밭, 원예, 과수 등을 가꿀 수 있다. 다른 한쪽에는 축구장, 헬스실, 실내체육관도 있어 아이들의 정서적 함양뿐만 아니라 신체적 함양도 할 수 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디딤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G

글·정소안 인턴기자

문의 www.nyhc.or.kr ☎031-333-1900

국민과 SNS소통… "공공기관, 참 잘했어요!"

병무청 등 공공기관 20곳, 인터넷소통·소셜미디어 우수기관에 선정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모바일까지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도 민간기업 못지않게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온 부산시,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병무청 등 공공기관 20곳이 민간기업 26개사와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이번 시상식은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모바일을 활용해 고객과 소통 잘하는 신뢰받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 기업·공공기관의 고객지향적 소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이 후원하고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했다.

공공부문 평가대상은 총 8백60개 기관으로, 4천명의 고객패널을 통한 평가와 전문가 집단의 진단을 거쳤다.

부산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웹사이트 종합평가에서 다시 '고객소통 경쟁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평가에서 부산시는 페이스북과 블로그가 매우 잘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객들이 알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을 잘 배열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상적이고 소소한 소재들을 통해 자칫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부산시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잘 그려내 높은 점수를 얻었다.

4천명의 고정패널 평가·전문가 진단 거쳐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공공부문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SNS는 여행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웹사이트에서는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등 카테고리를 나눠 사진, 짧은 설명 글을 배치해 두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해두었다.

또 트위터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여행을 유도하는 글을 포스팅, 한국관광공사의 느낌을 잘 살렸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트위터는 약 13만명의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블로그 또한 누적방문자 3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블로그마을 홈페이지와 병무청이 제공한 곰신커플 캐리커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블로그마을'이란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네이버나 티스토리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의 글을 올림으로써 다양하고 높은 질의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RSS(Rich Site Summary) 시스템을 가동해 개인 블로그에 있는 국립공원 관련 글만을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또 블로그마을 최다 게시자를 '국립공원 파워블로거'로 선정하여 이들을 통해 '국립공원 블로그(일상쉼표, Park!Park!)'에서 양질의 국립공원 탐방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소셜댓글 등 소셜플로그인을 제공하여 양방향 소통의 가능도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 SNS에는 보통 기업들이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셜페르소나'가 자리 잡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굳건이'라는 이 소셜페르소나의 이름은 SNS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지어주었다.

병무청 SNS는 올해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곰신커플을 위한 페이스북 캐리커처 이벤트'를 진행, 매주 당선자에게 캐리커처를 선물해 주어 남친을 군대에 보낸 여친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병무행정에 대한 퀴즈 풀이에 선물도 주는 '금요깜짝퀴즈'를 진행, 한 시간 동안 참여자 수만 매번 3백~4백명을 웃돌았다. G

글·박경아 기자

지난해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 'IFA 2012'에서 관람객이 삼성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되는 유명 오디오 브랜드의 자동차 연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모바일 클라우드 정착… 자료저장 신경 끝!

2013년 IT 전망… PC시대 백업의 강박관념은 아련한 추억으로

새해가 밝았다. 2013년은 국내외 IT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앞서 가던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 구글이 매섭게 추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8을 내세워 모바일에서의 약진을 노리고 있다. PC용 CPU의 강자 인텔은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반면 모바일 플랫폼은 저전력을 내세워 PC와 서버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올해 모든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 잡을 모바일 분야를 짚어 보자.

아날로그 시대에 유행했던 경박단소(輕薄短小) 경향이 되살아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대표되는 모바일기기가 그 중심에 있다. 스마트폰은 MP3와 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를 대체하고 있고 태블릿은 개인용컴퓨팅(PC) 사용자를 흡수하고 있다. 초경량 노트북인 울트라북의 유행은 PC 분야가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변화는 사실 애플이 주도한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갖춘 스마트폰의 원형을 제시했다. 휴대성이 극대화된 울트라북은 애플의 맥북에어를 복제한 수준이다. 타 업체의 태블릿 제품들 또한 애플의 아이패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이 애플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음에도 실적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양은 흉내 낼 수 있지만 모바일을 모바일답게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IT융합 활발… 컴퓨팅 환경 모바일로 전환

애플 제품은 손쉬운 사용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앱스토어 등 전용 유통망을 통해 책, 음악, 동영상 등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는 인터넷 접속을 제외하면 게임밖에 할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유통망에 대한 관리가 없어 불법복제가 판치는 바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형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8을 바탕으로 모바일의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윈도8은 기존의 PC 방식과 태블릿 방식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키보드와 마우스로 업무를 보다가도 화면 부분만을 집어 들면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PC용 중앙처리장치(CPU)와 모바일 CPU를 동시에 지원한다.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융합이 화두이고 애플 또한 같은 시도를 하고 있어 PC에서 개인용 모바일 컴퓨팅(PMC·Personal Mobile Computing) 환경으로 옮아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으로 보아 윈도8의 융합 시도는 아직은 섣부른 것으로 판단된다.

IT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의 요구사항에 비해 상품의 성능이 지나치게 높을 때 파괴적 혁신기술이 등장했었다. 파괴적 혁신기술로 만든 제품은 기존 시장의 요구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 효율성 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가진다. 이런 제품이 일단 시장에 도입되면 빠르게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성능이 개선되어 곧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클라우드의 진화로 빅데이터 각광 받을듯

PC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용자들이 PC의 성능에 무관심해졌듯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성능을 가진 기존 서버도 모바일 서버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용 모바일 컴퓨팅 환경과 빨라진 인터넷 속도로 인해 인터넷 서버 분야도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실시간 백업과 동기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콘텐츠도 클라우드에서 곧바로 소비된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 것보다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더 빠를 정도다. PC 시대에는 개인 하드디스크에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는 등 사용자 각자가 안전한 데이터 보관에 신경을 써야 했다면 클라우드 시대에는 온라인 자동 백업, PC와의 자동 동기화 등으로 데이터 보관 자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사용자들은 이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실시간 사진 공유와 같은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을 찍으면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전용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PC를 켜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사진함을 동기화시켜 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은 사진들을 알아서 개인 보관함에 올리고 공유 여부를 묻는다. 심지어 스마트폰 개인 설정까지 완벽하게 클라우드에 백업되므로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이전 상태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가 있다. 전원이 나가면 작성하던 문서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은 이제 옛말이 된 것이다.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 구글 등이 추격하지만
모바일에 맞는 콘텐츠 구축이 최후 승부처 될듯
클라우드는 인터넷 상의 가상 저장장치로
실시간 사진공유·SNS대화 등 무제한 백업보관
표본추출이 아닌 거대한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 뽑아내는 빅데이터 활용도 늘듯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가상의 거대한 저장장치를 제공한다. 클라우드는 내가 찍은 사진, SNS로 나눈 대화 등 그 어떤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이 거대한 데이터 뭉치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하여 트렌드를 추출하거나 개별적인 사용자들의 특성을 분류해 낼 수 있다.

개별적인 사용자 특성 분류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위력은 이미 미국 대선에서 증명된 바 있다. 오바마 캠프는 각 사용자의 게시판 활동, SNS에 남긴 개인정보와 친구 관계를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선거전략을 수립했다. 단순한 홍보물도 사용자마다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실제로 오바마 캠프가 유권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각기 달랐는데 그 종류가 수천 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의 완성' 스마트카 출현도 기대

자동차는 그 자체로 완벽한 모바일기기이다. 차가 항상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상태가 되면 스마트카로 변신하게 된다.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IT 기업들도 차에 스마트함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진단 기능뿐만 아니라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통한 무료 내비게이션 기능도 이미 기본이 되었다.

구글은 무인 자동차, 즉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운전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50만킬로미터 이상의 시범주행 기록을 갖고 있다. 이 기록은 지정된 트랙을 벗어나 고속도로와 복잡한 시내를 주행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은 모바일 환경이 더욱 더 극대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한국도 이에 발 맞추어 모바일 환경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창의력 있는 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전환도 절실하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G

글·김인성 (IT칼럼니스트)

눈 덮인 김유정문학촌의 전경.

한겨울에 봄과 청춘의 여운을 보다

눈이 오고 나면 또 다시 한파가 찾아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며 떠나는 여행의 키워드는 낭만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작은 간이역과 떠나간 문학가의 자취가 남은 곳. 한 줌 '낭만'을 덤으로 주는 서정적인 전통시장이 기다리는 낭만의 도시 춘천으로 간다.

낭만의 도시, 춘천

참 이상한 일은, 춘천이라는 도시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 한편에 나른한 바람이 불어왔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대략 이런 것들이다. 까까머리 청년을 태운 춘천행 입영열차가 어느 밤의 북한강을 따라 달렸고, 수줍은 연인은 노을 내려앉는 소양호를 바라보며 데이트를 즐겼으며, 한 무리의 청춘은 강촌의 허름한 민박집에 둘러앉아 기타를 튕기며 젊음과 뜨거운 것과 사랑과 우정과 세계관 따위를 토론하고 고민했던 일들 말이다.

그리고 공지천에 피어오르던 물안개를 기다리며 들었던 김현철의 노래 '춘천가는 기차'. 일상의 피로로 단단해진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 놓은 그 아름다운 노래는 결국 '청춘'과 '봄'의 기억을 남겨둔 채 추억으로 남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춘천 가는 '기차'는 운행되지 않는다. 매끈하게 새로 놓인 선로 위를 달리는 것은 덜컹이는 무궁화 열차가 아니다. 한 뼘 마당과 한 뼘의 하늘을 가진 어여쁜 경춘선 간이역들도 죄다 문을 닫았다. 대신 바람만큼 빠르게 달리는 전철이 춘천 가는 사람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실어 나른다.

춘천 신동면 증리 실레마을. 이곳은 1930년대 한국 소설의 축복이었던 김유정이 태어난 곳이자 그가 써 낸 서른한 편의 소설 중 <동백꽃> <봄봄> <만무방> <소낙비> 등 열두 편의 무대가 된 곳이다. 김유정역에서 2백미터쯤 떨어진 곳에 김유정문학촌이 들어앉았다. 스물아홉 해의 짧은 인생이라서 그의 마지막을 수습했던 친구들이 월북을 했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많던 가문의 재산을 홀랑 들어먹은 그의 형 때문에 김유정의 문학촌에는 변변한 유물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김유정의 노란 동백꽃은 봄의 생강나무꽃

그러나 작은 문학촌 내에는 김유정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곱 살에 어머니를, 아홉 살에 아버지를 여읜 뒤 모성 결핍으로 한때 말을 더듬었던 김유정이, 독극물처럼 쓰고도 강렬했던 박녹주를 향한 짝사랑과 실연의 주인공이었던 김유정이, 실레마을에 금병의숙을 지어 농촌계몽활동을 벌였던 사상가 김유정이, 농촌과 도시의 밑바닥 인생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신명에 빠진 글쟁이 김유정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1937년 3월 29일 새벽 달빛 속에서 희게 빛나던 배꽃을 바라보며 폐결핵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탁월한 언어감각을 뽑아 낸 이야기꾼이었다. 그가 숨지기 열하루 전 친구 안회남에게 보낸, 닭을 잡아먹고 기운을 차릴 돈 1백원을 융통해 달라는 절절한 편지 앞에서 문학관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은 끝내 요동을 치고 만다.

김유정문학관에 들렀던 사람들이 해설가의 설명을 듣다가 대부분 '아~' 하고 무릎을 치는 이야기. 김유정의 동백꽃은 흔히 알고 있는 피처럼 붉은 꽃의 동백이 아니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예전엔 강원도에서는 노란색 꽃을 피우며 향긋하고도 알싸한 향을 내는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 불렀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노란색이다. 그래서 김유정의 동백꽃은 봄날이다.

천장에 매달린 미러볼 아래 떠들썩한 장날이 시작된다.

골목갤러리에는 춘천 중앙시장의 옛 흔적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다.

50년 전에 시작된 중앙시장은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춘천 사람들의 부엌으로서 살뜰한 역할을 하던 이 전통시장은 낭만과 흥이 살아 있는 곳이다. 이름에도 '낭만시장'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아치형의 지붕이 있는 시장 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천장에 매달린 반짝이는 미러볼들이다. 금방이라도 신나는 노랫소리와 함께 광대패 한 무리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미로 같은 골목의 중앙시장은 일명 '낭만시장'

골목길 노점들은 저마다 예쁜 간판을 내걸었다. 과일장수도 속옷장수도 커피장수의 손수레에도 손으로 만든 앙증맞은 간판이 걸려 있다.

시장의 구석구석을 알려주는 '낭만지도'를 한 장 뽑아들고 골목길을 누빈다. 사람 한 명 간신히 드나들 너비의 미로 같은 시장 골목에는 '작품'들이 숨어 있다. 천장에 대롱 매달린 조형물과 벽에 달라붙은 낡은 전선을 따라 질주하는 알록달록 미니카, 벽에서 자라난 거대한 당근, 아기자기한 벽화와 시장 상인들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골목 갤러리)까지. 쉴 새 없이 시선을 붙잡는 터라 동시에 카메라 플래시도 시선을 따라 팡팡 터진다.

예술작품들뿐만 아니다. 낭만맛집에서는 낭만시장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를 선보이며 맛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낭만상회에서는 낭만시장의 역사와 시간, 상인들의 이야기와 물건들을 전시한다. 시장 중앙통의 한가운데에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낭만극장과 낭만광장이 있고 안내소의 역할을 하는 낭만살롱도 자리 잡았다.

시장의 낭만을 둘러보며 뜨끈뜨끈한 국물에 푸짐히 올린 순대국밥 한 그릇 맛보고 춘천에서 제일 유명한 황소표 국수집에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 주는 국수 한 다발을 사고는 양키시장에서 미제 사탕이나 과자를 뒤적거려 본다.

낭만시장을 나와 반대편 길로 걸어가면 닭갈비 골목이 나온다. 춘천에선 꿩보다 닭이다. 인구 27만명 정도의 도시에 2백 개가 넘는 닭갈비집이 존재하는 도시가 바로 춘천이다. 춘천 사람들은 닭갈비를 못 먹어 보면 춘천에 온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닭갈비는 갈비 자체가 아니라 토막 낸 닭을 포를 뜨듯 도톰하게 펴 얼큰한 양념에 재워 두었다가 갖은 야채와 함께 철판에 볶아 먹거나 숯불에 구워 먹는 요리다.

춘천닭갈비는 1960년대 허름한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사발과 함께하는 저렴한 안주거리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양념한 닭갈비를 숯불에 구워 먹었는데 시간이 흘러 뜨거운 철판 위에 듬성하게 썬 양배추와 양파, 파 등의 야채와 가래떡이나 고구마까지 곁들여 달달 볶아 먹게 된 것으로 발전했다.

닭갈비집은 춘천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명동과 온의동, 후평동에 닭갈비 거리가 조성돼 있다. 외지인들에겐 시청 앞 명동 닭갈비 거리가 유명하고 춘천 사람들은 좀 더 한적한 온의동이나 후평동 골목으로 간다.

사실, 유명하다는 몇몇 집에서 맛을 보았는데 맛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취향에 따라 기름 쏙 빠지는 담백한 맛의 숯불구이 닭갈비와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풍부한 식감을 자랑하는 철판구이 닭갈비로 호불호가 갈리겠다. 물론 숯불구이든 철판구이든 적당히 고기를 골라 먹고 난 후 굵은 우동 면이나 밥을 남은 양념에 볶아 먹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통점이긴 하다.

춘천에선 닭갈비만큼 유명한 것이 막국수다. 점심때가 돼 춘천의 한 막국수집에 들렀는데, 메뉴판에 '총떡'이라는 생소한 음식 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중앙시장은 사람이 많고 활기차다.

소박한 재료와 맛으로 추운 겨울을 달래 주는 메밀총떡.

춘천의 명물이자 자랑거리인 닭갈비. 춘천에는 2백여 개의 닭갈비집이 성업중이다.

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호기심이 들어 5천원 하는 총떡 한 접시를 청했다. 이윽고 등장한 재미난 이름의 총떡은 봉평 등지에서 흔하게 보던 메밀전병과 비슷한 모양새다. 다만 다른 강원도 지역의 메밀전병보다 둥글둥글하게 단단히 말아 낸 모습이 흡사 총대처럼 보인다(그래서 이름이 총떡이다).

닭갈비는 기본… 막국수·총떡도 춘천의 별미

총떡은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려 나왔는데, 맛이 궁금해 얼른 한 개를 집어 입에 넣었다. 본래 메밀은 거친 땅에서 자라는 만큼 그 맛도 소박하고 투박한 것이 정석이다.

다만 전병이나 부침개류의 메밀 음식은 조금 다르다. 솥뚜껑 번철에 기름칠을 슬쩍 하고 다소 묽게 반죽한 메밀가루를 얇게 부쳐 낸 다음 몇 가지 소를 넣어 먹는 음식이라 고소한 데다가 소와 어우러지는 감칠맛이 좋다. 총떡도 그렇다. 푹 익은 김치 송송 썰고 돼지고기와 함께 양념을 한 소를 넣고는 보쌈처럼 둘둘 말아 먹는다. 고소하고 짭조름하면서 고기가 들어 있어 씹는 맛이 쏠쏠하다.

총떡 한 접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막걸리 아니겠는가. 춘천에 왔으니 춘천막걸리를 마셔봐야겠다. 신북읍 율문리의 천전양조장에서 빚어낸 소양강막걸리는 온전히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소양강 쌀로만 빚어낸다. 탁주임에도 술은 맑고 향기롭다.

1백퍼센트 우리 쌀로 담근 이 술은 다른 지역의 탁주보다 정갈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술이 부드러우니 꿀떡꿀떡 잘도 넘어간다. 고소한 메밀전병과도 잘 어울리고 알큰한 양념의 닭갈비와도 궁합이 맞겠다 싶다. G

글·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버스를 이용하려면 동서울터미널에서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춘천행 버스를 타면 된다(**춘천시외버스터미널 033-241-0285, www.chterminal.co.kr**).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춘천IC에서 빠져나와 70번 국도를 이용하면 김유정역과 남춘천을 지나 명동까지 갈 수 있다.

열차 'ITX-청춘'이 매시간 정각 용산역을 출발해 춘천역까지 운행한다. 소요시간은 1시간10분. 상봉역에서는 매시간 2~3회 전철이 운행된다(**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 **'온의동 닭갈비거리'** : 춘천행 전철 혹은 ITX-청춘열차(용산 출발, 왕십리역과 옥수역 등 정차)를 이용, 남춘천역에서 하차하면 도보 5백미터 내에 있음 **'명동닭갈비거리' & '춘천 중앙시장'** : 춘천행 전철 혹은 ITX-청춘열차(용산 출발, 왕십리역과 옥수역 등 정차)를 이용, 춘천역에서 하차하면 도보 17분 정도, 택시(기본요금), 62번 버스 타고 '약사면동주민센터' 하차 • **대표적인 5일장 & 샘밭장** : 춘천행 전철 혹은 ITX-청춘열차(용산 출발, 왕십리역과 옥수역 등 정차)를 이용, 남춘천역에서 11번 버스, 춘천역에서는 12-1번 버스를 타고 40분 소요됨 • **김유정역** : 춘천행 전철을 타고 김유정역 하차

먹을 곳 닭갈비와 메밀총떡 외에도 춘천에서는 모래무지찜을 맛봐야 한다. 민물고기인 모래무지에다 가을에 채취해 잘 말려 놓은 무청 시래기와 무를 넣고 조려낸 음식이다. 다른 생선찜에 비해 살이 푸짐하진 않지만 모래무지 특유의 담백함이 일품이다. 여기에 푹 조려져 몰랑해진 무와 함께 먹으면 얼큰하고 달착지근한 맛이 혀에 착착 감긴다. 서면 안보리의 **다윤네 033-263-1888**와 **남산면 강촌리 발례골 033-261-4865**이 잘한다. 메밀총떡은 **후평동의 부안막국수 033-254-0654**와 신북읍 **천절리의 명가막국수 033-242-8443**가 유명하다.

잠잘 곳 북한강을 따라 들어앉은 이국적이고 멋스러운 펜션이 많다. **서면 헤른버그**(www.hernburg.co.kr)는 중세시대 독일의 고성을 본떠 만든 독특한 복층펜션. 맞은편 **빌라마리**(www.villamari.co.kr)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는 수수하고 서정적이며 낭만적인 시골집을 닮았다. 남산면 서천2리에 위치한 **알바노**(www.albano.co.kr)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이 멋진 스파 펜션이다.

문의 춘천시청 관광포털 tour.chuncheon.go.kr
춘천시청 관광과 ☎033-250-3068
김유정 문학촌 ☎033-261-4650, 09:30~17:00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 휴관) www.kimyoujeong.org
춘천낭만시장 ☎033-254-5338, 09:00~18:00

떡하니 전라도 음식으로 자리매김

광주와 담양 등 전라남도 일대에서 즐기는 음식에 떡갈비가 있다. 사전의 설명을 빌리자면 "소나 돼지의 늑골에 붙은 살을 떼어 다지고 양념하여 떡처럼 만들어서 구운 음식"이다.

경기도 일원에서도 해 먹는데 전라도의 떡갈비가 워낙 유명세를 타 지금은 그곳의 향토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광주에는 전문식당들이 모여 있는 떡갈비골목이 있고 오리탕, 한정식, 보리밥, 김치 등과 함께 떡갈비가 광주오미(光州五味)로 선정될 정도이다.

떡갈비의 내력에 대해 옛날에 임금이 갈비를 손에 들고 뜯어 먹는 것이 체통 없는 행동이라 여겨 갈비에 붙은 살을 떼서 곱게 다져, 먹기 쉽도록 고안한 것이라고 흔히들 설명한다. 또 그것이 민간에 전해진 경로를 궁에서 일하던 나인들에 의한 것이라고도 하고, 전라도 땅으로 유배 간 양반들이 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떡갈비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고기를 다져 만든 모양이 시루떡을 닮아서 나온 이름이란 설이 있고 만드는 방법이 인절미 치듯 하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해설도 있다. 그러나 정작 떡갈비라는 음식은 조선조 궁의 기록이나 요리책에 나오지 않는다.

1795년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갈비찜(乫飛蒸)이 등장하고 1892년의 〈진찬의궤(進饌儀軌)〉나 그 이후의 〈진연의궤(進宴儀軌)〉에는 오늘날의 갈비탕을 지칭하는 갈이탕(乫伊湯)도 올라 있지만 떡갈비는 보이지 않는다. 19세기 말의 요리책 〈시의전서(是議全書)〉에도 가리찜이나 가리적은 나오지만 떡갈비는 찾아볼 수가 없다.

20세기 초 첫 등장… 담양·광주 송정동이 양대 산맥

굳이 비슷한 음식을 꼽자면 〈시의전서〉에 나오는 약산적이 있다. 그 조리법을 "쇠고기를 썰어 좋은 진장에 갖은 양념을 합하여 주무른 후 꼬지에 꿰어 도마에 놓고 잔칼질하되, 사면을 얌전히 모아 반반하게 한다. 그리고 깨소금을 뿌려 석쇠에 굽는데, 때로는 네모 반듯이 썰어 쓰기도 한다"고 한 걸로 미루어 떡갈비와 흡사하다고는 하겠으나 어쨌건 떡갈비는 아니다.

떡갈비의 본고장으로는 담양과 광주의 송정동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두 지역의 떡갈비는 닮은 듯 다르다. 우선 담양의 떡

염동우 기자

갈비는 소고기만을 사용하지만 송정동의 떡갈비는 쇠고기에 돼지고기를 섞는다. 섞는 비율은 떡갈비골목에 있는 10여 곳의 식당이 각각 다르지만 그 이유는 식어도 씹는 맛이 퍽퍽해지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이란다.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은 부수적인 자랑이다. 그러나 담양의 떡갈비는 소고기만을 쓴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두 지역의 떡갈비는 성형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담양의 떡갈비에는 갈비뼈가 들어 있는 반면 송정동의 떡갈비는 뼈 없이 고기만으로 만든다. 송정동 떡갈비의 기원은 1950년대에 '최처자'라는 할머니가 송정장에서 떡갈비와 비빔밥을 팔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현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반면에 담양의 떡갈비는 조선 초기(1420)에 회례사(回禮使)로 일본에 다녀온 후 〈노송당일본행록(老松堂日本行錄)〉을 저술한 송희경(宋希璟)에 의해 전해졌다는 것이 현지의 설명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료의 뒷받침은 없으며 담양 최초의 떡갈비전문 식당은 20세기 초에 문을 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떡갈비라는 명칭은 일러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거나, 1950년대 이후에 생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고장의 떡갈비는 담양의 '신식당'과 광주의 '화정떡갈비'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서울에서는 효자동의 '진일정'에서 담양식 소고기 떡갈비를 맛볼 수 있다. G

글·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실력이 허물을 덮다

'세종 시대 최고의 동시통역사' **김하**(金何·?~1462)는 세종5년(1423) 문과에 급제했다. 그리고 실록에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세종7년 8월 15일이다. 이조판서 허조가 대언사(代言司)에 와서 곽존중과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공조참의 조숭덕이 사대문서(事大文書·대명외교문서)를 관장하였는데 지금 죽었다고 하오. 뒤이어 맡을 자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긍·최치운·김하가 이 일을 맡을 만하니, 그동안 맡고 있던 승문원(承文院) 직사는 면제하고 오로지 사대문서에 필요한 중국 이문(吏文)을 습독(習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니, 모름지기 이 뜻을 위에 아뢰시오."

이문이란 말 그대로 관리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로 한문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따라서 아직은 통역보다는 번역 쪽의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실이 반듯하지 못했는지 김하는 세종14년(1432) 예조정랑으로 승진하지만 그해 12월 불법무역을 하다가 적발돼 투옥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장형을 받고 풀려났다. 다음해(1433) 12월에도 김하는 세종의 명을 잘못 전달했다는 이유로 장형 60대를 맞고 의금부에 투옥되는 일을 당했다. 그의 아버지가 형조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로서의 그의 경력은 그리 순조로운 출발은 아니었던 것이다.

세종은 재위20년 되던 해 신하들과 세자의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중국 어음(語音)도 몰라서는 안된다"며 "3일에 한 차례씩 서연에서 세자에게 〈직해소학(直解小學)〉과 〈충의직언(忠義直言)〉을 가르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선생으로 김하를 지정한다. 당시로서는 이미 최고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21년(1439)은 실록에서 김하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해다. 그만큼 활약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미 그 전에도 중국에 가서 조선의 형법이기도 했던 '대명률'의 조항과 관련해 중국 조정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는 일을 한 것으로 보아 김하는 이 무렵이 되면 중국어와 이문에 상당히 능통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세종31년 9월에는 국방과 관련된 밀명을 받고 북경을 다녀온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고서도 김하의 중용은 계속된다. 그해 말 김하는 중병이 있다며 한성부윤에서 물러나겠다고 청을 올렸지만

일러스트·유재일

문과 급제 후 중국 이문의 번역 일 맡아
행실에 문제 있어 불법무역 등 두 차례 장형
세종시대 최고의 동시통역사로 능력 인정받아
세조대에 이르기까지 재상으로 부와 권력 누려

문종은 윤허하지 않는다. 단종1년 3월 19일 김하는 사역원을 총괄하는 사역원 도제에 올라 후진양성에 나서게 된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하는 그러나 1년4개월 만인 단종3년 윤6월 예조판서로 화려하게 관직에 복귀한다.

그 사이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1455년 왕위에 올랐다. 김하의 관운은 계속된다. 이미 세종 때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알고 있던 세조는 신하들이 김하를 예조판서에 임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청하자 정면으로 물리친다.

세조1년 윤6월 13일 세조는 예조판서 김하와 형조참판 우효강을 주문사로 임명한다. 임무는, 중국에 세조의 즉위를 전하고 허락을 받아 오는 것이다. 그리고 10월 13일 주문사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다. 세조2년 6월 25일 김하는 공조판서로 자리를 바꾼다. 김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중국어 실력 하나만으로 부와 권력을 함께 누린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 운도 잘 따라주었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속물 교양의 탄생〉

"명작을 향한 편집증적 독서의 반성"

박숙자 지음
푸른역사 · 2만원

축구공이나 차던 아들놈이 꽤 많은 위인전 전집과 SF소설 전집을 연달아 읽어 내자 어머니는 일대 용단을 내렸다. 여전히 생생하다. 멀찌감치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온 세상의 지혜를 나에게 다 줄 것 같던, 흑갈색 두꺼운 표지 위에 작가와 책 이름이 금박으로 빛나던 세계문학전집 60권이 작은방 서랍장에 자리 잡던 그 풍경 말이다.

결과야 뻔하다. 온갖 '~스키'들 사이에서 방황하던 아들은 책장을 닫아 버렸고, '책 좋아하는 아들' 이미지 구축에 실패한 어머니는 말문을 닫아 버렸다. 왕년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다 있었다는 그 '왕년'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는 아마 '문학 앓이'일 것이다. 다들 이런저런 추억 떠오를 법하다.

〈속물 교양의 탄생〉은 이러한 추억에 대한 얘긴데, 격이 다르다. 저자는 그걸 다 읽어 냈단다. 그것도 다양한 종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짝짝짝) 일단 박수부터. 그런데 서문에다 엉뚱한 소리를 해 놨다. "교양은 과시하거나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 내고 품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책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나"고 토로하더니 마침내 "명작에 대한 편집증적 독서를 반성한다"고 해 놨다. 왜 그랬을까.

솔직히 책 자체가 놀랍다고 하긴 어렵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징표 가운데 하나는 기원 찾기다. 먹고살기 바쁠 때야 그런 호사 누릴 여유 따윈 없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난 어디서 와서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두리번거리기 시작한다. 이 책도 그런 종류다. 한국의 특수성이라면, 기원은 기원이되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점이다.

한국 근대성의 식민지적 기원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틀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 매개되는 방식으로 수입되다 보니 원전의 참뜻이 그나마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만의 전통적인 그 무엇에 대한 향수를 더더욱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다.

이 책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정치사회적 모순이 가득 담긴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장발장의 파란만장한 인생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대목에서부터 시작해 결국 바람직한 대안으로 민중적 춘향전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방식 말이다.

물론 그 사이에 빼곡하게 들어찬 식민지 시기 문학의, 교양의, 지성의 풍경들은 읽는 재미를 더하게 해 준다. 그것도 비교적 귀에 익은 소설가, 시인 같은 문인들이 줄줄이 등장하니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얘기 하나 하고 싶다. '속물'이란 표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저자야 자기고백적인 의미에서 썼겠지만, 아마 이 단어만 보고도 속이 뜨끔할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며, 각 일간지 서평 담당 기자들이 이 책에 대한 소개기사를 많이들 써 낸 까닭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문학 앓이' 추억을 되새김한 독서편력 고백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혹시 '속물적'이란, 그냥 '인간적'이란 뜻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하고 바랄지는 몰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 가끔은 은근히 충족되면 괜스레 뿌듯하니 기분이 좋다가도 가끔 너무 노골적으로 들키면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나앉은 듯 부끄러운 그런 욕망 말이다. 식민지기 교양에서부터 오늘날 인문학 열풍까지 비슷비슷한 현상이 늘 지속된다면 더더욱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반성한다는 이 책도 정작 또 다른 속물과 교양인의 경계 짓기로 읽힐 가능성은 없을까. 아주 졸렬하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은 참 뻔한 책을 읽는구나, 나는 나만의 책을 읽는데"라는 중얼거림으로 읽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교양이든 무엇이든 취향이란 건 원래 좀 자기만족적인 것 아니던가. 아니 빙빙 에둘러 말고 직설적으로 말해 두자. 속물?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적 패배를 견뎌 내기 위해 흔히 취하는 방어적 수사 같아서 개인적으론 퍽 불편하다. G

글 · 조태성 (서울신문 문화부 출판팀장)

회초리보다 더 아픈 칭찬

글과 그림 · 최영순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괴테(독일의 시인)

“한류는 이제 선망을 넘어 학습의 대상”

한류의 모든 것 담은 소개서 〈한류 : K-Pop에서 K-Culture로〉 발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문화충격들이 이젠 무덤덤할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상징되는 ‘디지털 로드(Digital Road)’를 통한 한류의 확산에는 장벽이 없으며, 그 범위는 대중문화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난 수년간 재외주재관의 전문보고, 국내외 정부자료, 외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확인됐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위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한류종합소개서 〈한류 : K-Pop에서 K-Culture로〉를 지난해 12월 18일 발간했다.

한국문화(K-Culture), 한국스타일(K-Style)은 이미 선망의 차원을 뛰어넘어 학습 대상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다른 나라 심지어 선진국에서까지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이다.

〈한류 : K-Pop에서 K-Culture로〉는 대중예술로 상징되는 한류를 뛰어넘어 순수예술, 의식주, 사회운영 시스템 등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류 현상을 분석한 종합서다. 책은 ‘서장: 디지털 로드의 시대’ ‘1부: 한류에서 신한류로’ ‘2부: 한류의 확산과 미래’ ‘에필로그: K-Pop에서 K-Culture로’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책은 서장에서 “정보기술(IT) 혁명으로 탄생한 디지털 로드가 문명교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놓았다”고 분석했다. ‘육로’, ‘바다의 길’ 같은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SNS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 로드 타고 세계로 거침없는 확산”

디지털 로드 시대에서 한류 확산은 거침이 없다. 이전까지 아시아권에서 중국(비단·화약·인쇄술·도자기·철학), 일본(19세기 자포니즘), 인도(종교·철학·향신료) 정도가 간헐적으로 서구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문화의 확산속도는 지난 20세기까지 이들 문화가 끼친 영향력을 뛰어넘고 있다.

‘제1부 : 한류에서 신한류로’에서는 한류의 탄생 배경을 ‘멋과 풍류의 전통’에서 찾고 있다. 우리 역사에는 개방성과 융·복합 능력이 곳곳에 보인다. 서역의 문화예술들을 받아들여 토착화시킨 신라, 이슬람 역법을 채용한 조선, 조선 지식인과 서양 지식인과의 소통, 한국 노래로 거듭난 외국 노래 등은 한류 탄생에 개방성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브라질 상파울루 삼바스쿨에서 참가자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한류와 관련된 삼바 연습을 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맛’과 ‘풍요’라는 키워드로 한류의 확산과 미래를 전망한다. 알프스 융프라우, 뉴욕,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어디에나 존재하며 사랑받는 한국 식품의 맛을 조명하며 외신이 본 한국 김치의 비밀과 한국 음식문화의 매력을 함께 살폈다.

이와 함께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인 클래식 연주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의 연구대상으로 등장한 한국 클래식,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성악도들, 세계와 소통하는 미술과 춤 등 한국 순수예술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문화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단견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문화력은 경제 논리로만 타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한국문화의 세계 확산을 성찰함으로써 철학적 의미를 찾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했다.

문화로 세계 이웃들의 감성을 위로하고,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세계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글·이범진 기자

여유 있게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2013년! 여유있는 뱀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뱀의 지혜로운 기운을 느껴 보자

어느 여름날, 친구가 있는 강원도의 한 암자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천이 녹음으로 울창하고, 금방 소나기라도 내릴 듯 습하고 무더운 날이었다.

그렇게 스무 살의 내가 산길을 걸어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걸 보았다. 나는 뱀을 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일단은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지만, 잠시 후 그 풍경이 신비로웠다. 폭염의 무더위에 서늘한 어떤 기운을 본 것이다. 한여름에 내리는 눈을 본 기분이랄까,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다. 그것은 고스란히 내 가슴에 풍경으로 남았다.

그날, 나는 조심스럽게 뱀을 지나쳐서 친구를 찾았다. 암자에서 공부보다는 술 먹기에 열심이었던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냥 발로 툭 차 버리든지 잡아서 뱀술이라도 담가 먹어야 한다면서 입맛을 다셨다. 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기억이 강렬하게 아직도 남아 있다.

이제는 삼십 년도 더 지난 일이라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 친구가 동대문에서 건어물 가게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것 같다. 친구도 그 산길의 뱀처럼 나에게서 아주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친구 역시 내 기억에 그렇게 남았다.

사람의 관계도 어떤 시절에는 용을 대하듯 하다가 어떤 시절에는 뱀을 대하듯 하는 법이다. 하여간 뱀은 되도록 그 거리를 멀리하고 싶다.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뱀은 지상에서 가장 낮게 살고 있다.

12간지 중 여섯번째… "올해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온몸을 땅에다 대고 기어 다니기에 뱀은 하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상 동물이다. 현실을 살고 우리들의 가난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뱀은 이미지가 어둡다.

설문조사를 하면 뱀은 호감도가 낮은 동물 중에 하나다. 서양에서도 뱀은 〈이집트 사자의 서〉를 비롯한 성경 등에서 매우 불길한 악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십이신장 중의 하나로 뱀을 선택했을까. 뱀은 영리하기 때문이다. 뱀을 괴물이나 악마로 보지 않고 영리하고 민첩한 기능을 높이 사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뱀처럼 살아야 할 때가 있다. 낮고 음습한 곳에서 머물러야 할 시절이 있다. 그 시절을 견디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큰 인물들이 모두 이러한 시절을 견디고 낮게 살아왔기에 어느 순간 뜻을 이루고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법이다.

나는 뱀이 현실을 대하는 그 밀접한 거리에 주목한다. 뱀은 삶의 터전인 땅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하늘을 멀리 둔다. 그런 뱀이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되어 승천하는 것이다. 용이 되면 뱀은 땅과는 가장 멀리 있는 하늘 그 자체로 변신해 버린다. 용보다 뱀이 더 우리들의 현실에 가깝게 있다. 용을 본 적은 없지만 뱀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뱀을 호위 신장으로 선정한 이유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로운 기운, 뱀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뱀을 뜻하는 '사(巳)'는 십이간지 중에 가운데 여섯번째에 위치해 있다. 올해를 나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고자 한다. 뭔가 기운찬 일을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지점으로 이정표를 세운다.

글 · 원재훈 (시인 · 소설가)